

2026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6. 3. 31.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http://ent.hs.ac.kr> / TEL : (031)379-0104(입학인재발굴팀)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3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3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3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5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5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6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6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7
1. 논술고사	7
가. 출제 전	7
나. 출제 과정	10
다. 출제 후	10
2. 면접고사	15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9
1. 문항별 총괄표	19
2. 대학 자체 설문 분석 결과	21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41
VI. 부록	42
1. 2026학년도 논술문제	42
2. 2026학년도 면접문제	70
3. 2026학년도 문항카드	72
4.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신입생 설문지	154
5.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58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참인재	인문/자연계열	○		○				X
수시	논술	인문/자연계열	○	○					○
수시	체육실기	특수체육학	○			○			X
정시	일반학생	특수체육학	○			○			X
수시	학생부우수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학교장추천	인문/자연계열	X						
수시	사회배려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고른기회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기회균형선발(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수시	농어촌학생(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일반학생	인문/자연계열	X						
정시	기회균형선발(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농어촌학생(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https://ent.hs.ac.kr / 한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메뉴 > '공지사항'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히 작성하였는가?	○

- [표]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 고사	실기·실형 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기타		
수시	참인재	인문/자연계열	○		○				X	준수
수시	논술	인문/자연계열	○	○					○	준수
수시	체육실기	특수체육학	○			○			X	-
정시	일반학생	특수체육학	○			○			X	-
수시	학생부우수자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학교장추천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사회배려자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고른기회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기회균형선발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농어촌학생	인문/자연계열	X							-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인문/자연계열	X							-
정시	일반학생	인문/자연계열	X							-
정시	기회균형선발	인문/자연계열	X							-
정시	농어촌학생	인문/자연계열	X							-
정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인문/자연계열	X							-

- [표]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인문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1교시	1~10	○								
		자연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2교시	1~5	○								
		인문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1교시	11~15				○					
		자연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2교시	6~15				○					

[첨부]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제시 내용(p.21)

마. 논술고사 안내

1) 평가 방법

구분	반영 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지 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80%	10	5	각 문항 8점	80분	120점 + 680점(기본점수) = 총 800점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자연계열	80%	5	10				

2)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표현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Ⅰ, 수학Ⅱ	-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2015.1.16 규정 신설, 2022.3.21 개정 규정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절차에 대한 학교 규칙을 규정했으며, 규정된 사항 제시함(한신대학교 규정_제5편 위원회_25.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자체영향평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교교육 과정상의 체육·예술 교과(군) 실기고사는 예외(동법 제16조제3항의 적용배제)로 한다.

제 2 장 선행학습 영향 평가위원회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선행학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대학별고사의 개선을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입학·홍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1.04.27><개정 2022.03.21>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입시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시 마감기한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본 대학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업무관리)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입학·홍보본부 입학인재발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21.04.27><개정 2022.03.21>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10조(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 및 모집학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영향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입학전형의 반영) 입학·홍보본부에서는 영향평가 결과의 내용을 해당 입시년도 3월 31일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3.21>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4조 ①항, 제8조 개정.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개정)

부 칙(2022.0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4조 ①항, 제8조, 제11조 개정.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개정)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은 내부 4명, 외부 3명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함
 - ▲ 기능 : 우리대학이 효과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대학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함
 - ▲ 역할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함
 -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참여여부
위원장		남○○	입학·홍보본부	입학홍보본부장	○
내부위원 (2명)		유○○	한국어문학	교수(논술고사 출제위원장)	○
		윤○○	금융공학	교수(논술고사 출제위원장)	○
외부위원 (3명)	외부입시전문가	유○○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	○
	고등학교 교사	한○○	오산고등학교(일반고)	현직 고교 교사 (인문계열)	○
	고등학교 교사	최○○	장안고등학교(일반고)	현직 고교 교사 (자연계열)	○
간사		류○○	입학인재발굴팀	입학인재발굴팀장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반드시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을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외부위원 구성 비율

총 외부위원 수	현직 고교 교사(일반고)	외부 입시전문가
3명	2명(66.6%)	1명(33.3%)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가. 대학별 고사(면접) 일정

구분	전형 명칭	전형 유형	고사일
면접고사	참인재전형	학생부교과	2025. 10. 11(토)
논술고사	논술전형	논술	2025. 11.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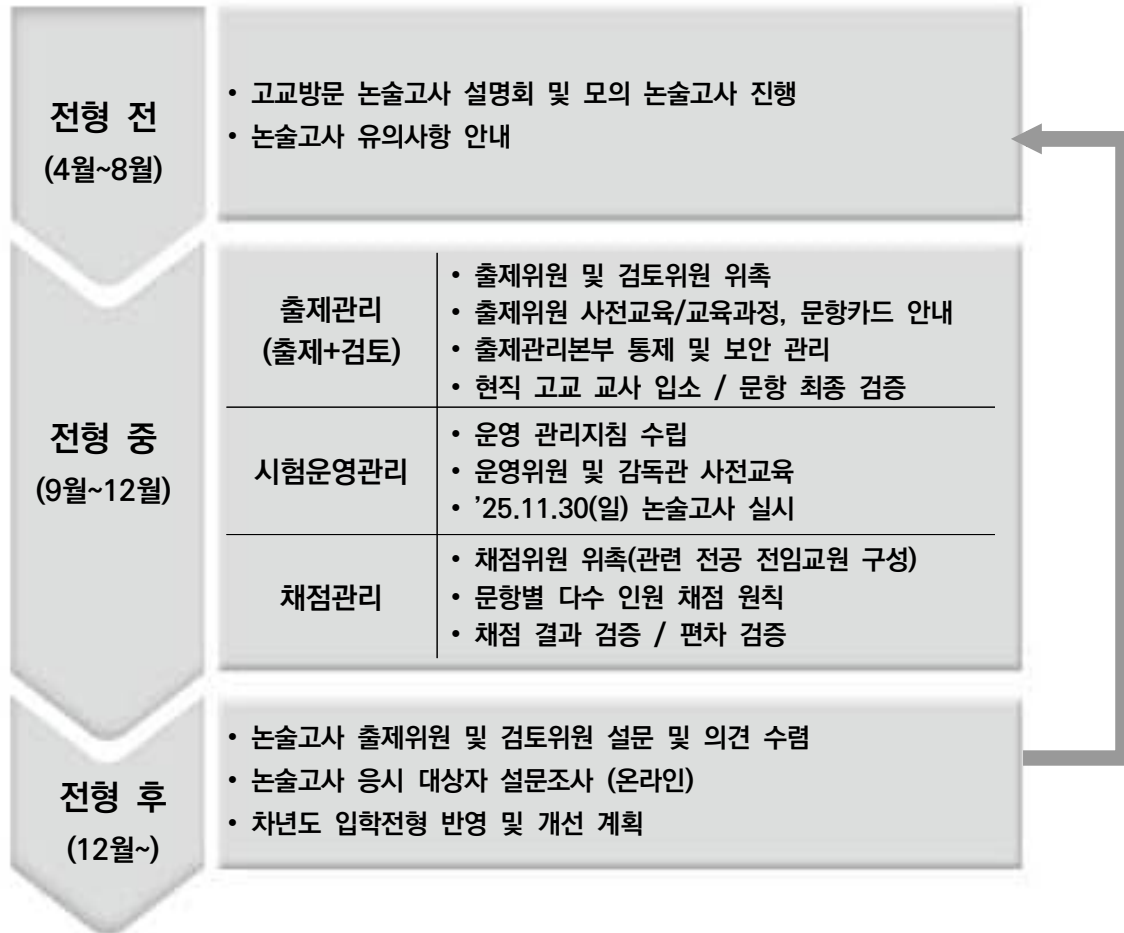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 1) 내부위원(고사 시행 전~고사 시행 후) 사전 검증
- 2) 외부위원(고사 시행 후) 검토의견 수렴
- 3) 설문조사 시행
 - 조사대상 : 대학별고사(면접·논술) 실시전형 합격자 (본등록대상자 기준)
 - 조사기간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후 (2026. 01. 02(금) ~ 16(금))
-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향후 대입전형 반영계획수립 : 2026. 03. 03(화) ~ 13(금)
- 5)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2026. 03. 03(화) ~ 20(금)
- 6)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최종점검 회의 : 2026. 03. 20(금)
- 7)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개
 - 공개일자 : 2026. 03. 27(금)
 - 공개방법 : 한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탑재 및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 등록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 논술고사

우리대학 2026학년도 논술고사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논술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임



[논술고사 운영 프로세스]

가. 출제 전

① 고교 교육과정 분석 (출제 전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1)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시행

- 2025년 4~9월 중 신청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모의고사 실시
- 전형 전, 모의 논술고사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본 논술고사 출제 시 반영함
- 2026학년도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고사 출제방향을 안내하고 개인별 채점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논술고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하고, 2026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이도 측정에 활용하고자 함

2) 2026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운영

- 2025년 4월~8월 중 신청 고교(전국)를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전형 안내 및 모의 논술고사 진행

구분	건수	월	방문 고교명
모의 논술고사 (고교 방문)	2	4월	(7일)혜원여자고등학교, (9일)상일고등학교
	7	5월	(2일)감일고등학교, 충현고등학교, (9일)인천여자고등학교, (12일)동탄고등학교, (20일)마전고등학교, (21일)소사고등학교, (22일)매탄고등학교
	4	6월	(5일)보정고등학교, (10일)화성반월고등학교, (18일)성지고등학교, (20일)강일고등학교
	6	7월	(4일)동패고등학교, 한백고등학교, 효양고등학교, (9일)단원고등학교, (11일)성일고등학교, (17일)시흥고등학교
	4	8월	(6일)기흥고등학교, (14일)반송고등학교, (28일)인천논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계	23		고교 모의 논술고사 23회

② 출제 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노력 : 본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 속하는 국어, 수학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를 토대로 출제 전 구비하여 논술고사 출제 장소에 제공하였음

국어		수학	
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문학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 수능완성 독서·문학·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은 출제범위 제외)	수학 수학II	수능특강 수학I 수능특강 수학II 수능완성 수학I·수학II·미적분 (미적분은 출제범위 제외)
각 3Set	각 3Set	각 3Set	각 3Set

※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 적용 교육과정 안내

구분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문학', '독서'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 과목명: '수학 I', '수학 II'

▲ 202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출제 방향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관리 지침서』 7~8page 내용)

1. 논술고사 시간 및 배점

▶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모집	논술	인문·자연계열	261명	학생부교과(20%) + 논술고사(80%) (일괄합산)

구분	반영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지 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80%	10	5	각 문항 8점	80분	120점+680점(기본점수) = 총 800점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자연계열	80%	5	10				

▶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표현 -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 I, 수학 II	-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2. 문제 출제방향 및 영역

가. 출제방향(인문계열, 자연계열)

고교 교과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계산능력 및 종합적 사고능력, 논리력, 이해력 등 수험생의 잠재된 학습 능력평가를 하고자 함.

나. 출제방법

- 1) 인문계열은 국어영역 10문항 + 수학영역 5문항, 자연계열은 국어영역 5문항 + 수학영역 10문항의 논술고사 문제를 80분 동안 답할 수 있게 출제한다..
- 2) 문제는 최근 출제되었던 논술고사 유형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를 위반시 동법 제14조에 의거, 재정지원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 4) 지문이나 자료·도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을 위한 시험과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6) 출제는 인문·자연계열 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하되,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2015 교육과정)에 수록된 수준의 내용을 준거로** 친숙한 내용을 출제한다.
- 7)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쉬울 경우 변별력이 낮아지므로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비교적 중위권 능력자 집단임을 고려하여 기존 테스트 자료와 현장 간이 테스트자료를 통해 난이도를 확인·조정한 후 **수험생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중하”수준으로 출제한다.**

다. 출제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구분	과목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학 I, 수학 II

※ 과목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기준표 및 내용 체계는 별도 파일로 제공한다.

나. 출제 과정

①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비율

구분	총 인원	고교교원 참여인원	고교교원 참여비율
출제위원	6명	-	-
검토위원	2명	2명	100%
전체	8명	2명	25%

- ▲ 출제 및 문항 검토 과정에서 본교/타대학 교수, 현직 고교 교사 등 경험이 풍부한 교육과정 전문가 참여
대학 내의 논술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6명의 출제위원,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2명으로 출제 및 문항 검토를 수행함

▲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검토위원 명단(출제본부 입소자)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전형 인문/자연계열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2명	-	2명 (2명)

출제위원(국어) 유○○ 교수(한국어문학 교수, 전 논술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국어) 강○○ 교수(한국어문학 교수)
출제위원(국어) 심○○ 교수(한신대학교 교수, 전 논술/적성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수학) 윤○○ 교수(금융공학 교수, 전 수능출제위원, 전 논술/적성고사 출제본부장)
출제위원(수학) 유○○ 교수(빅데이터융합학 교수, 전 논술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수학) 안○○ 교수(○○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전 적성고사 출제위원)

검토위원(국어) 유○○ 교사(고교 현직교사 / 국어 교과 담당)
검토위원(수학) 박○○ 교사(고교 현직교사 / 수학 교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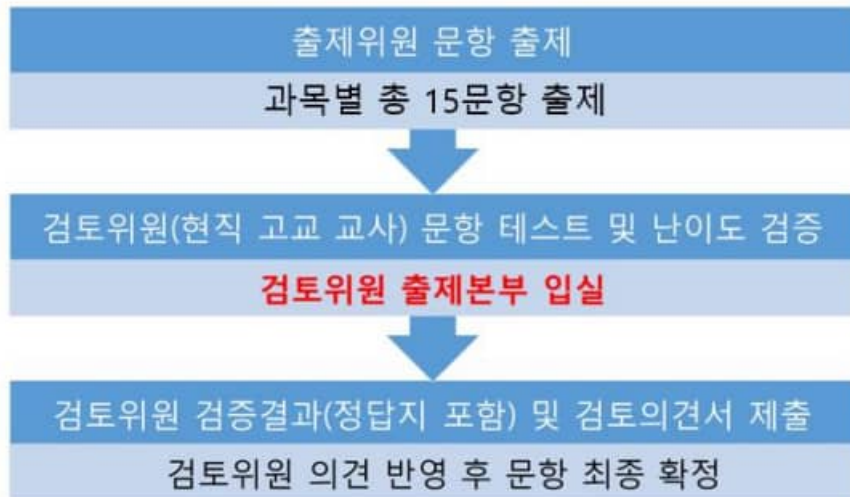
②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과목별(국어, 수학)별 현직 고교 교사가 출제본부에 직접 입실하여 출제 문항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난이도를 검증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를 철저히 파악함

다. 출제 후

①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 가) 논술고사 출제문항을 현직 국어, 수학 담당교사에게 검증 의뢰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의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출제본부의 모범답안과 현직 고교 교사의 답안을 교차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
- 나) 검토위원(고교 교사)을 대상으로 출제 내용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설문 및 의견 수렴 실시



과목	종합 의견 요약
국어	- 독서 문항의 경우 1교시는 인문과 사회 분야의 글을, 2교시는 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과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을 고루 출제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 문학 문항의 경우 1교시는 운문과 산문 작품을, 2교시는 산문 작품을 활용해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묻는 문항과 갈래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항을 통해 감상적 이해를 확인하고 있어 역시 교육과정 범위에 부합하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 문항카드는 성취기준과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담고 있음.
수학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항은 1교시와 2교시 문항 모두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 고등학교 수학 I, 수학II 과목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적절히 반영한 문항으로 구성됨. - 내용 체계에 따른 핵심 개념에 대하여 이해, 계산, 표현, 활용 등의 기능을 골고루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별 문항 배열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각 문항마다 학습 요소의 용어와 기호를 적절히 사용하였음. -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논술고사 출제문제 검토위원 의견서(국어)

■ 문항별 검토결과

1교시			2교시		
번호	검토결과		번호	검토결과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1	○	○	1	○	○
2	○	○	2	○	○
3	○	○	3	○	○
4	○	○	4	○	○
5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종합의견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독서 문항의 경우 1교시는 인문과 사회 분야의 글을, 2교시는 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과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을 고루 출제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문학 문항의 경우 1교시는 운문과 산문 작품을, 2교시는 산문 작품을 활용해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묻는 문항과 갈래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항을 통해 감상적 이해를 확인하고 있어 역시 교육과정 범위에 부합하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문항카드는 성취기준과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담고 있음.

2025년 11월 29일

작성자 : 유○○ (서명)

논술고사 출제문제 검토위원 의견서(수학)

■ 문항별 검토결과

1교시			2교시		
번호	검토결과		번호	검토결과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11	적정	적정	6	적정	적정
12	적정	적정	7	적정	적정
13	적정	적정	8	적정	적정
14	적정	적정	9	적정	적정
15	적정	적정	10	적정	적정
			11	적정	적정
			12	적정	적정
			13	적정	적정
			14	적정	적정
			15	적정	적정

■ 종합의견

-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항은 1교시와 2교시 문항 모두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
- 고등학교 수학 I, 수학 II 과목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적절히 반영한 문항으로 구성됨.
- 내용 체계에 따른 핵심 개념에 대하여 이해, 계산, 표현, 활용 등의 기능을 골고루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별 문항 배열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각 문항마다 학습 요소의 용어와 기호를 적절히 사용하였음.
-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9일

작성자 : 박○○ (서명)

다) 출제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출제 내용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설문 및 의견 수렴 실시

국어 출제위원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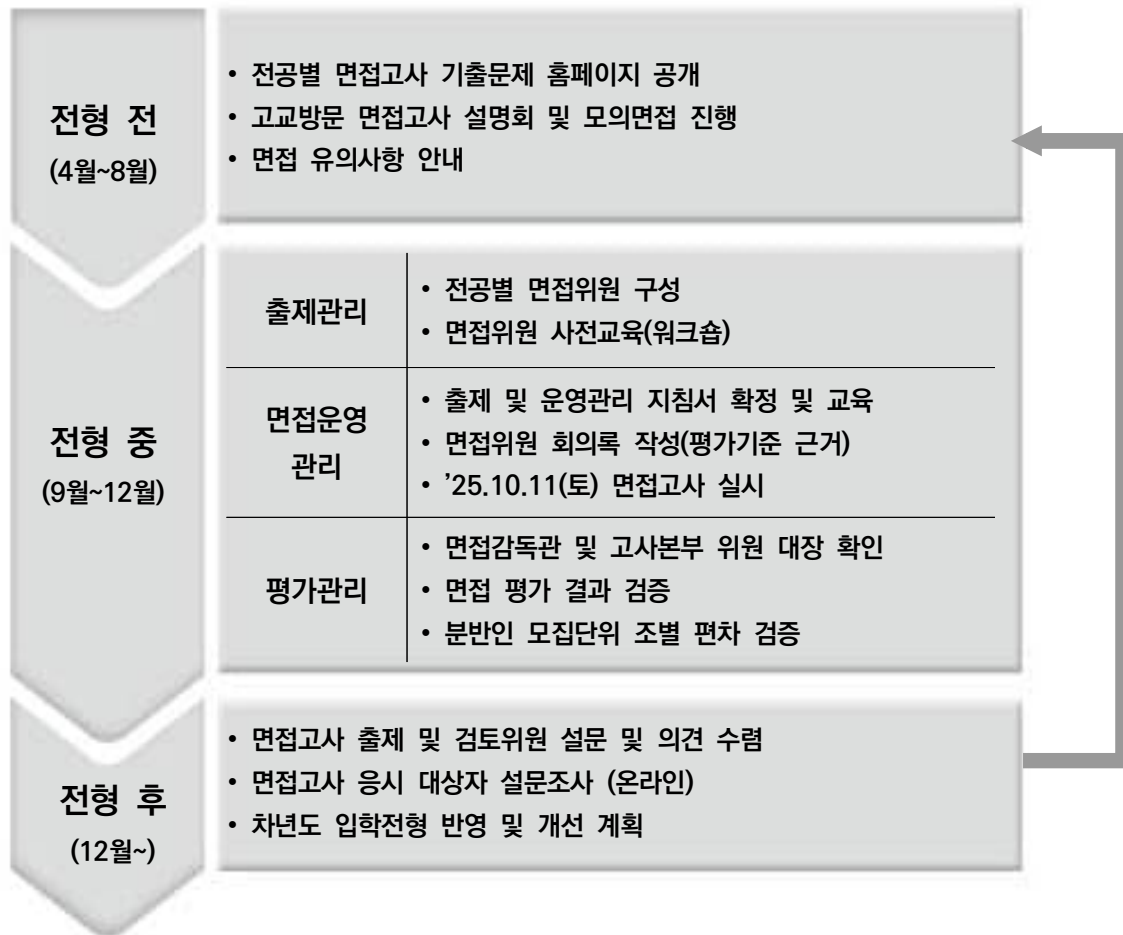
검토내용	조치사항
1. 문항의 난이도는 평이한가? 2. 문항의 발문에 오류는 없는가? 3. 문항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가? 4. 지문의 길이는 시험시간 동안 학생들이 소화하기에 적절한가? 5. 복수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6. 복수 정답의 배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과 좌측 기재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윤독을 통해서 발문 및 맞춤법의 오류를 수정하였음 복수의 정답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정답 인정, 부분 점수 인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위의 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中級'으로 조정하였음

수학 출제위원 의견서

검토내용	조치사항
● 문항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 문항에 오류는 없는가? ● 문제의 풀이 시간은 적절한가? ● 다양한 풀이 방법은 없는가? ● 평가 기준은 적절한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함 문항의 오류를 찾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생각해 봄 다양한 풀이 방법에 대한 채점 기준을 제시함 전체적인 난이도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출제함

2. 면접고사

우리대학 2026학년도 면접고사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면접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임



[면접고사 운영 프로세스]

가. 전형 전

1) 면접 기출문제 등 면접고사 자료 홈페이지 안내

- 2026학년도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면접고사 기출문제(최근 3개년)를 제공하여, 수험생 스스로 면접고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함
- 면접 기출문제를 포함한 대학별고사 분석자료(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전체를 연도별로 공개하여 대학별 고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

모집요강
입시자료실
수시Q&A
지난 모집요강

입시자료실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관련 자료 안내입니다.

전제
기출
Q 검색

공지	[수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전형 면접 기출문제	
	2025.03.25 • 조회수 3,881	
7	[수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전형 면접 기출문제	
	2025.03.25 • 조회수 3,881	
6	[수시] 2024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전형 면접 기출문제	
	2024.05.30 • 조회수 2,781	
5	[수시] 2023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 면접전형 면접 기출문제	
	2023.03.03 • 조회수 2,998	
4	[수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교과면접전형 면접 기출문제	
	2022.03.24 • 조회수 3,675	

<면접 기출문제 공개>

현행개학
공지사항
면접-실기가이드
입시자료 신청
성적산출
모의논술고사 설명회 신청

공지사항

한신대학교 입학홍보처 공지사항입니다.

전제
공통
수시
정시
편입학

전제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Q 검색

7	[공통]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5.03.24 • 조회수 946	
6	[공통] 2024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4.03.28 • 조회수 1,259	
5	[공통] 2023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면접 기출문제 포함)	
	2023.03.28 • 조회수 1,419	
4	[공통] 2022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면접 기출문제 포함)	
	2022.03.30 • 조회수 1,366	
	[공통] 2021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2) 2026학년도 고교방문 설명회 운영

- 2025년 4월~9월 중 신청 고교(전국)를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전형 안내 및 면접 진행 절차 설명

구분	건수	월	방문 고교명
고교 입학설명회 (110)	13	4월	(2일)은혜고등학교, (4일)작전여자고등학교, 송호고등학교, (7일)능동고등학교, (8일)화성반월고등학교, (11일)원종고등학교, 성포고등학교, 가평고등학교, (14일)정현고등학교, (15일)대일관광고등학교, (18일)세명컴퓨터고등학교, (30일)와우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27	5월	(1일)이산고등학교, 향남고등학교 (2일)수원칠보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7일)인천반도체고등학교,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9일)나루고등학교, 곡정고등학교, 송산고등학교, (12일)수도여자고등학교, 시흥매화고등학교, (15일)시흥능곡고등학교, (16일)서울관광고등학교, (19일)독산고등학교, (21일)경북여자고등학교, 화홍고등학교, (22일)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안양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 (23일)호매실고등학교, 남양고등학교, 서연고등학교, (28일)광성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29일)관양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30일)신명여자고등학교
	14	6월	(5일)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10일)처인고등학교, (11일)상동고등학교, (12일)원곡고등학교, (13일)망포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18일)부곡고등학교, (20일)안산강서고등학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6일)인천논현고등학교, (27일)서천고등학교, (30일)선부고등학교, 서울동산고등학교
	28	7월	(2일)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3일)이슬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4일)고척고등학교, (7일)양곡고등학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8일)도선고등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9일)원미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11일)도당고등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14일)학익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15일)교동고등학교, 안화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16일)안양공업고등학교,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남한고등학교, (17일)덕원여자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8일)동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21일)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28	8월	(1일)조원고등학교, (8일)수원여자고등학교, (12일)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13일)영덕고등학교, 광신고등학교, (18일)백송고등학교, 구로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19일)성남고등학교, (20일)태광고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21일)충훈고등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2일)모락고등학교, 감일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25일)향일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 송덕여자고등학교, (26일)근명고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28일)운산고등학교, 인덕원고등학교, (29일)수일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구일고등학교
박람회 (25)	2	5월	(15일)단원고등학교, (30일)초지고등학교
	3	6월	(12~13일)전남교육청박람회, (14일)광주시박람회, (14~15일)울산광역시박람회,
	12	7월	(5일)이천시박람회, (5~6일)안동시박람회, (11일)이천고등학교, (14일)새솔고등학교, (15일)산본고등학교, (15~16일)충남교육청박람회, (18~19일)광주광역시박람회, 경남교육청박람회, (19일)화성시박람회, 용인시박람회, 경기도교육청박람회, (24~26일)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8	8월	(3일)수원시박람회, (9일)평택시박람회, (16일)시흥시박람회, (20일)부광여자고등학교, (22일)이현고등학교, (23일)인천박람회, 고양시박람회, (30일)수원시박람회
계	135	-	고교 입학설명회 110회 박람회 25회

3) 면접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을 사전 공지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기본자세, 적극성, 자신감	면접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최선을 다하려는 적극성, 열정, 자신감 등을 살펴봄
기초소양	가치관과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답변하는가를 살펴봄
전공적합성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 및 적성, 학습수행능력정도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이해도와 관심정도를 관찰하고 지원한 전공에 적응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봄

나. 전형 중

- 1)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 형태로 진행
- 2) 면접문제 출제원칙을 사전에 공지함
 - ① 기초소양분야 1문항, 전공·적성분야 1문항 총 2문항을 출제함
 - ② 면접 실시 전, 전공 회의를 거쳐 전공에서 필요한 인재상, 출제 방향,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고 회의록을 제출함
- 3) **수험생의 면접 부담감을 줄여주고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면접문항을 사전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hs.ac.kr>)를 통하여 공개함**
 - ① **면접문항 공개: 2025. 09. 26(금) ~ 10. 11(토)**
- 4) 입학홍보본부장이 면접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및 대학별 고사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 진행



▲2026학년도 면접위원 교육자료 (대외비자료이므로 일부만 공개)

※ 상기 교육자료와 더불어 “202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면접 관리지침서”를 별도 제작하여 면접위원에게 사전 배포함

다. 전형 후

- 1) 참인재전형에 참여한 수험생 및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면접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사교육 유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 결과는 [IV. 문항 분석 및 평가] 참고)
- 2) 수험생의 면접 후기 정보(네이버 및 다음 카페, 페이스북 등)를 취합·분석하여 차년도 면접위원 교육자료에 반영함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별 총괄표 (※세부사항은 “VI.부록 - 3.2026학년도 문항카드” 참조)

(1) 논술고사(국어) p.72 - 118 참조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카드 페이지
논술고사	논술전형	인문계열	1	독서	준수	p. 72 - 74
			2	독서	준수	p. 75 - 77
			3	독서	준수	p. 78 - 80
			4	독서	준수	p. 81 - 83
			5	독서	준수	p. 84 - 86
			6	독서	준수	p. 87 - 89
			7	문학	준수	p. 90 - 94
			8	문학	준수	p. 95 - 96
			9	문학	준수	p. 97 - 98
			10	문학	준수	p. 99 - 101
		자연계열	1	독서	준수	p. 102 - 104
			2	독서	준수	p. 105 - 107
			3	독서	준수	p. 108 - 111
			4	독서	준수	p. 112 - 114
			5	문학	준수	p. 115 - 118

(2) 논술고사(수학) p.119 - 153 참조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카드 페이지
논술고사	논술전형	인문계열	11	수학 I	준수	p. 119 - 120
			12	수학 I	준수	p. 121 - 122
			13	수학 II	준수	p. 123 - 124
			14	수학 II	준수	p. 125 - 126
			15	수학 I	준수	p. 127 - 129
		자연계열	6	수학 I	준수	p. 130 - 131
			7	수학 II	준수	p. 132 - 135
			8	수학 I	준수	p. 136 - 137
			9	수학 I	준수	p. 138 - 139
			10	수학 I	준수	p. 140 - 142
			11	수학 II	준수	p. 143 - 144
			12	수학 I	준수	p. 145 - 147
			13	수학 II	준수	p. 148 - 149
			14	수학 I	준수	p. 150 - 151
			15	수학 II	준수	p. 152 - 153

(3) 논술고사 과목별 출제 문항 수 분석

구분	국어		수학		전체 문항수
	문학	독서	수학 I	수학 II	
1교시 (인문계열)	4 (40%)	6 (60%)	3 (60%)	2 (40%)	15 (100%)
2교시 (자연계열)	1 (20%)	4 (80%)	6 (60%)	4 (40%)	15 (100%)

(4) 면접고사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구분	문항 수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면접고사	참인재	전 계열	기초소양(공통)	1	해당없음 (※교과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전공적성(모집단위별)	1	

-기초소양: 문제에 대한 이해력, 분석능력, 주장의 합리성, 문제해결의 창의성, 적극성,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형 문제풀이 형태가 아닌 지원자의 다양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함

-전공적성: 전공에 대한 기본이해도, 입학 후 적응가능성과 미래의 성장가능성,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열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함

2. 대학 자체 설문 분석 결과

(1)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논술) 신입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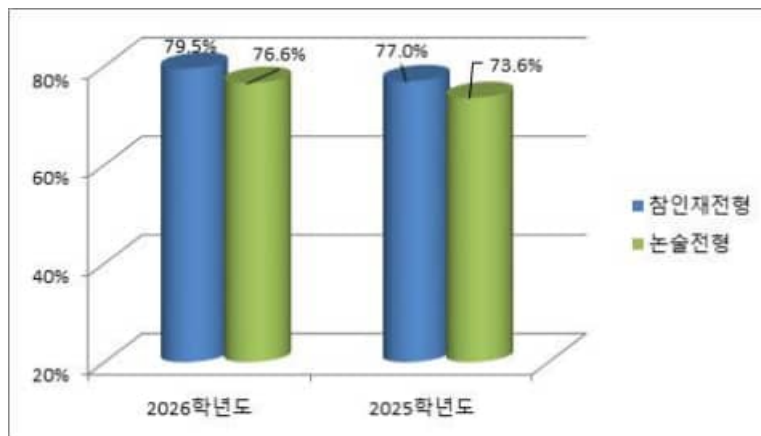
가. 2026학년도 면접실시전형과 논술고사실시전형 합격자 대상 선행학습 관련 설문조사 실시

구분	내용	비고
설문기간	2026.01.02.(금) ~ 01.16.(금)	2주간
설문대상	2026학년도 수시모집(참인재전형, 논술전형) 합격자	본등록 대상자 기준
설문방식	온라인 설문 (설문 URL을 제공하여 개별 접속)	설문 방법을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설문지구성	☐ Part I : 기본정보(인적사항) 질문 (선택형)	3문항
	☐ Part II : 대학별 고사 관련 질문 (선택형)	5문항
	☐ Part III : 사교육 경험 질문 (선택형)	2문항
	☐ Part IV : 지원한 전형의 개선안 (서술형)	1문항

1) 설문은 2026학년도 면접실시전형, 논술고사실시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실시전형(참인재전형) 최종 응답률 현황 : **79.5%(전년도 대비 2.5% 상승)**
- 논술고사실시전형(논술전형) 최종 응답률 현황 : **76.6%(전년도 대비 3.0% 상승)**
- 전체 최종 응답률 현황 : **78.2%(전년도 대비 3.0% 상승)**

구분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대상자(명)	응답자(명)	응답률(%)	대상자(명)	응답자(명)	응답률(%)
면접	참인재전형	293	233	79.5%	256	197	77.0%
논술	논술전형	261	200	76.6%	265	195	73.6%
계		554	433	78.2%	521	392	75.2%



<전형별 응답률 현황>

- 상기 설문 응답인원은 최초 총 응답인원에서 모집단위별 명단 대조 후 중복응답자 및 미대상자 응답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며, 중복응답 및 미대상 응답자는 모든 설문 항목 통계량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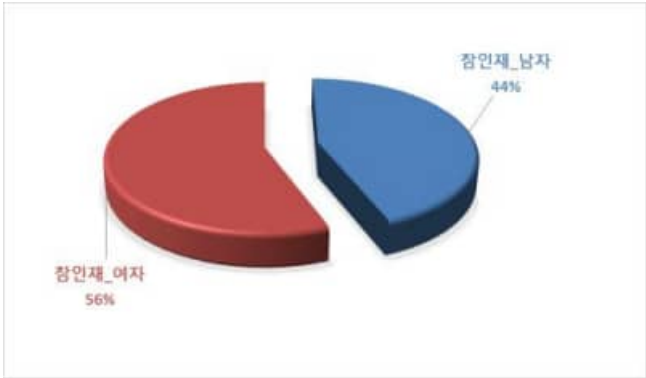
구분	전형명	최초 응답자(명)	중복 응답자(명)	미대상 응답자(명)	실제 응답자(명)
면접	참인재전형	234	1	0	233
논술	논술전형	200	0	0	200
계		434	1	0	433

2) 설문대상인원 중 참인재전형은 293명 중 233명(79.5%)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논술전형은 261명 중 200명(76.6%)이 응답하였음.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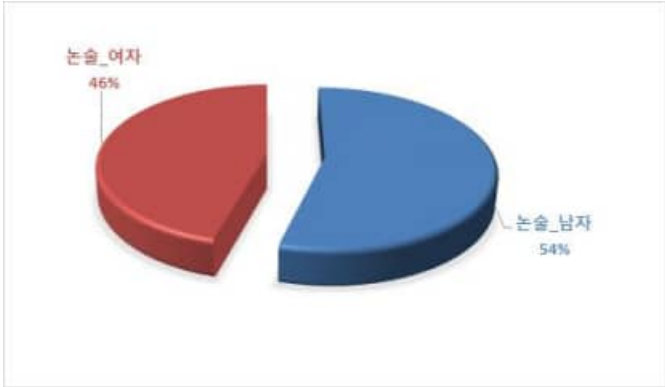
3)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참인재전형은 남자 103명(44.2%), 여자 130명(55.8%)이 응답하였음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남자	103	44.2
여자	130	55.8
합계	233	100.0



4)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논술전형은 남자 109명(54.5%), 여자 91명(45.5%)이 응답하였음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남자	109	54.5
여자	91	45.5
합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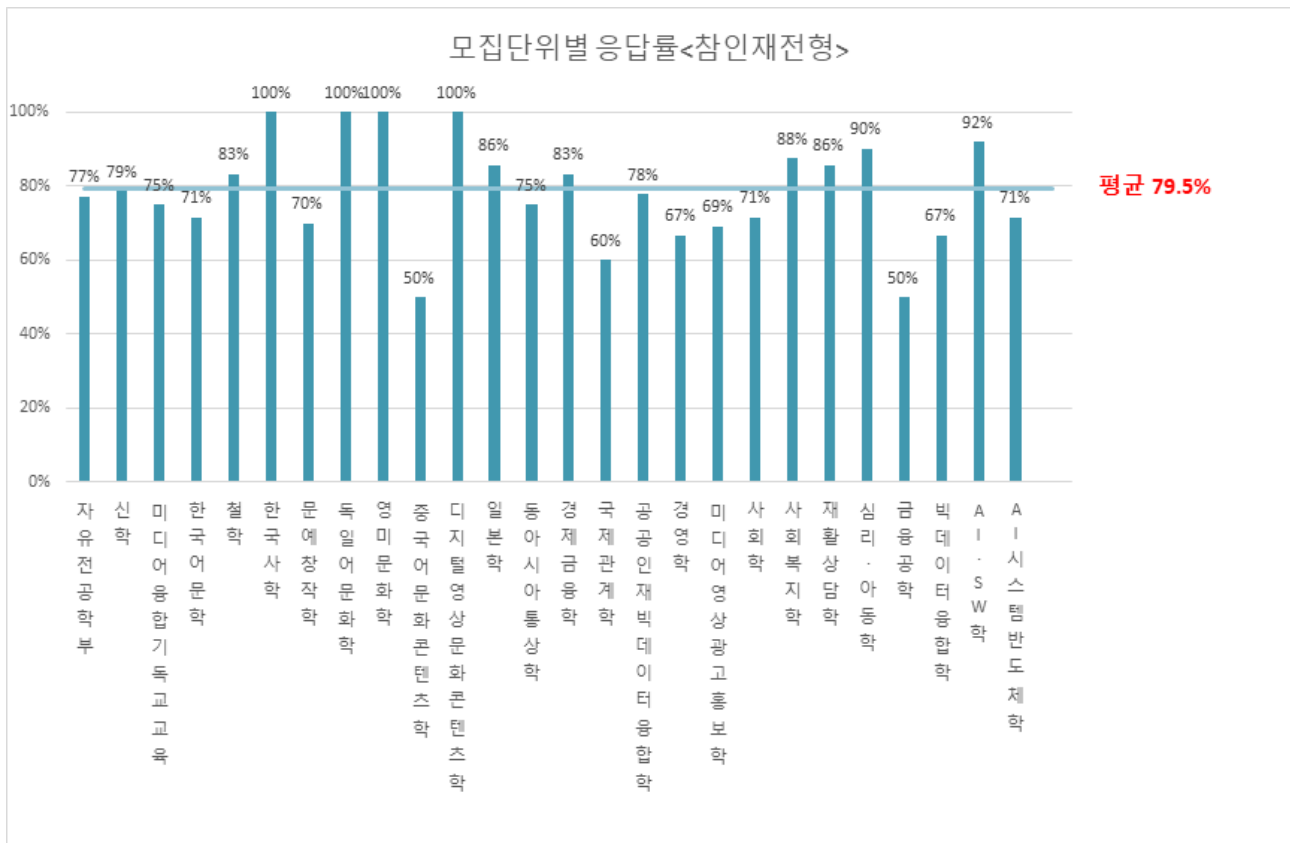


5) 모집단위별 응답자 분포

*참인재전형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자유전공학부	35	27	77.1%	국제관계학	10	6	60.0%
신학	14	11	78.6%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9	7	77.8%
미디어융합기독교교육	8	6	75.0%	경영학	18	12	66.7%
한국어문학	7	5	71.4%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3	9	69.2%
철학	6	5	83.3%	사회학	7	5	71.4%
한국사학	9	9	100.0%	사회복지학	8	7	87.5%
문예창작학	10	7	70.0%	재활상담학	7	6	85.7%
독일어문화학	6	6	100.0%	심리·아동학	10	9	90.0%
영미문화학	8	8	100.0%	금융공학	6	3	50.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8	4	50.0%	빅데이터융합학	6	4	66.7%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4	100.0%	AI·SW학	50	46	92.0%
일본학	7	6	85.7%	AI시스템반도체학	7	5	71.4%
동아시아통상학	8	6	75.0%	총합계	293	233	79.5%
경제금융학	12	10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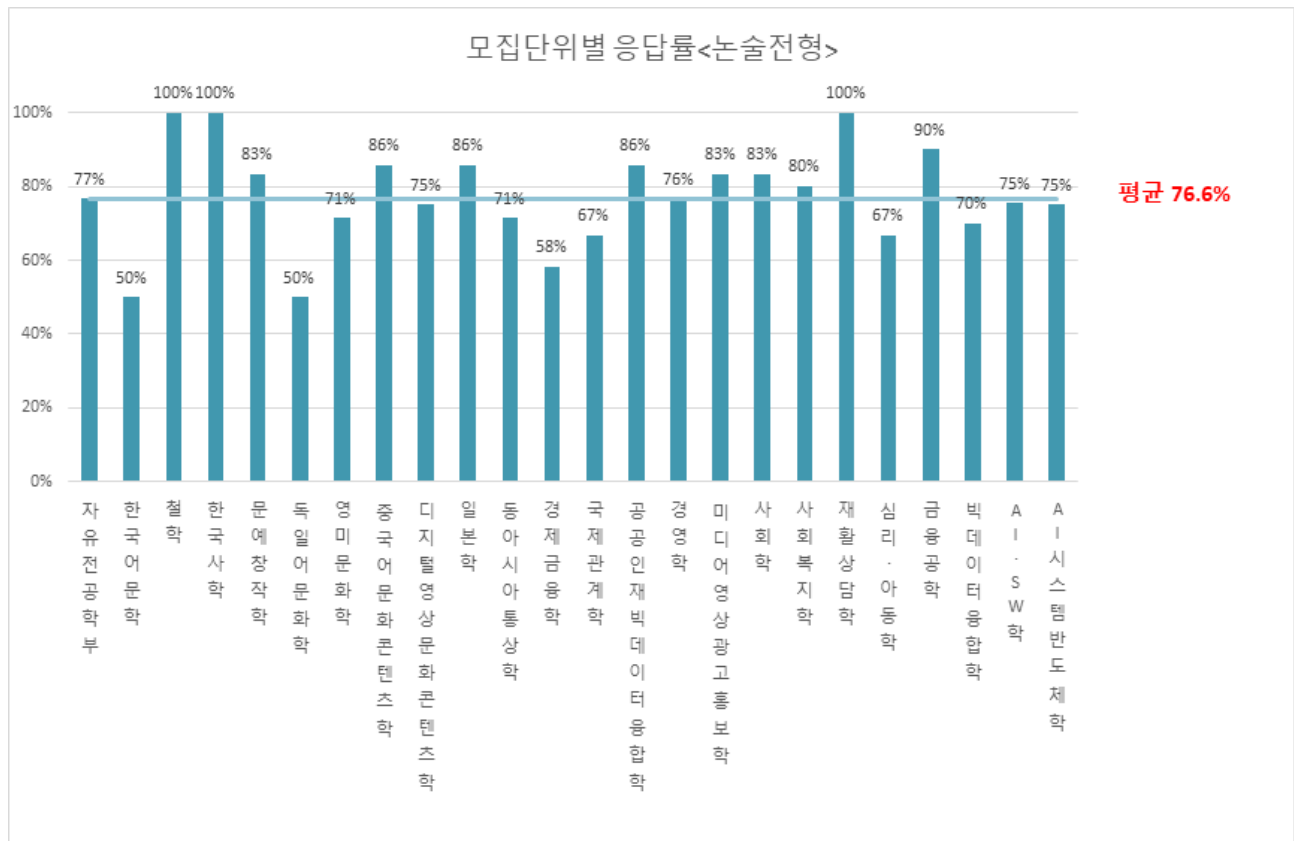
⇒ 전체 모집단위(26개 전공)에서 고르게 응답을 하였음.



***논술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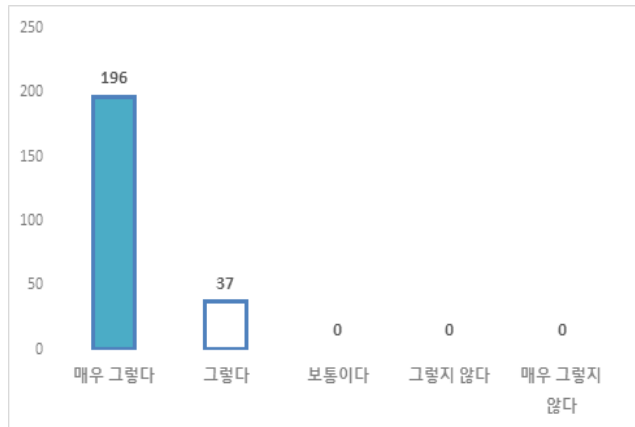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자유전공학부	30	23	76.7%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7	6	85.7%
한국어문학	6	3	50.0%	경영학	17	13	76.5%
철학	6	6	100.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6	5	83.3%
한국사학	7	7	100.0%	사회학	6	5	83.3%
문예창작학	6	5	83.3%	사회복지학	5	4	80.0%
독일어문화학	6	3	50.0%	재활상담학	6	6	100.0%
영미문화학	7	5	71.4%	심리·아동학	6	4	66.7%
중국어문화콘텐츠학	7	6	85.7%	금융공학	10	9	90.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3	75.0%	빅데이터융합학	10	7	70.0%
일본학	7	6	85.7%	AI·SW학	65	49	75.4%
동아시아통상학	7	5	71.4%	AI시스템반도체학	12	9	75.0%
경제금융학	12	7	58.3%	총합계	261	200	76.6%
국제관계학	6	4	66.7%				

⇒ 전체 모집단위(24개 전공)에서 고르게 응답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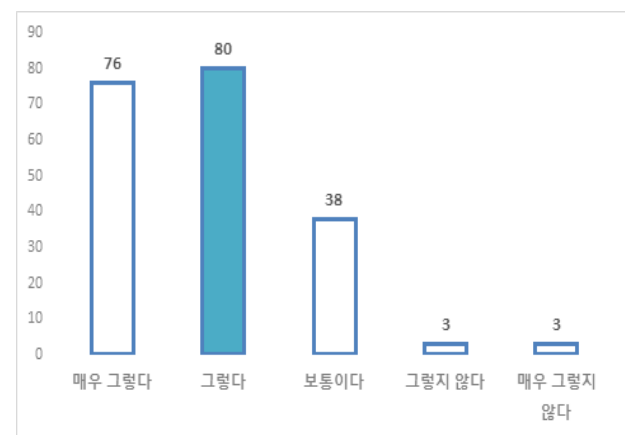
6) 면접일 이전 면접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전원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의견에 응답하였음. **긍정의 대답이 100%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196	84.1	163	82.7
그렇다	37	15.9	31	15.7
보통이다	0	0.0	2	1.0
그렇지 않다	0	0.0	1	0.5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0	0.0
합계	233	100	1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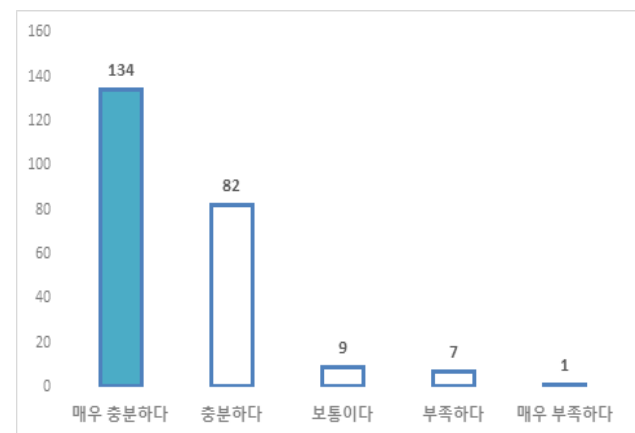
7) 논술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그렇다'(40.0%), '매우 그렇다'(38.0%) 순으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78.0%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76	38.0	61	31.3
그렇다	80	40.0	76	39.0
보통이다	38	19.0	52	26.7
그렇지 않다	3	1.5	5	2.6
매우 그렇지 않다	3	1.5	1	0.5
합계	200	1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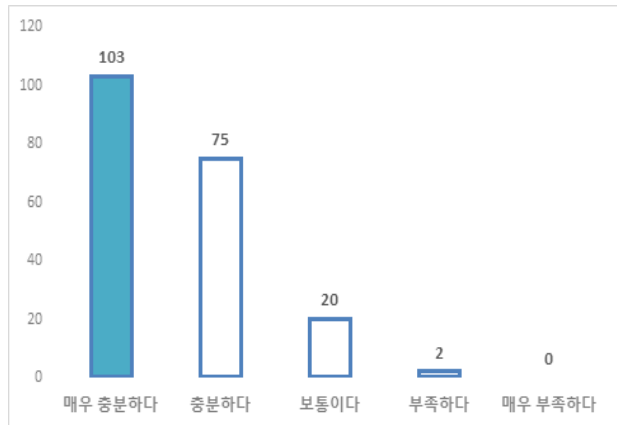
8) 면접고사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92.7%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134	57.5	81	41.1
충분하다	82	35.2	79	40.1
보통이다	9	3.9	22	11.2
부족하다	7	3.0	13	6.6
매우 부족하다	1	0.4	2	1.0
합계	233	100	1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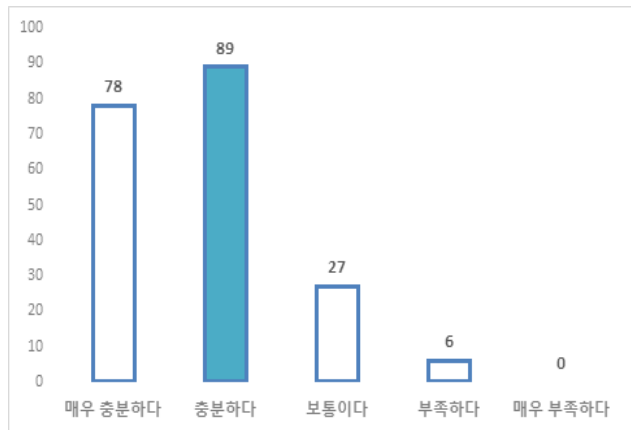
9-1) 논술고사(국어)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순으로 대체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89.0%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103	51.5	82	42.1
충분하다	75	37.5	86	44.1
보통이다	20	10.0	19	9.7
부족하다	2	1.0	8	4.1
매우 부족하다	0	0.0	0	0.0
합계	200	1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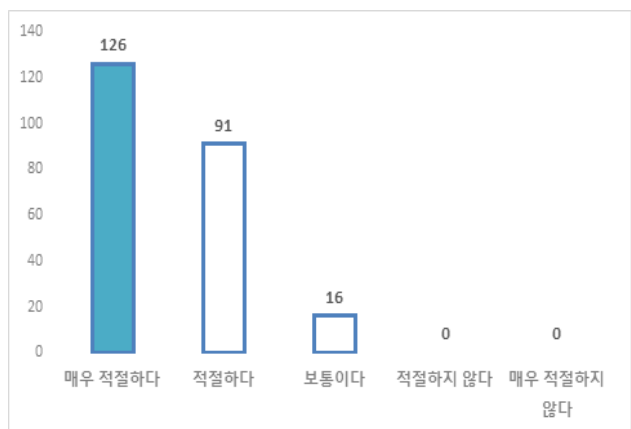
9-2) 논술고사(수학)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순으로 대체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83.5%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78	39.0	77	39.5
충분하다	89	44.5	78	40.0
보통이다	27	13.5	33	16.9
부족하다	6	3.0	6	3.1
매우 부족하다	0	0.0	1	0.5
합계	200	100	195	100



10) 면접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93.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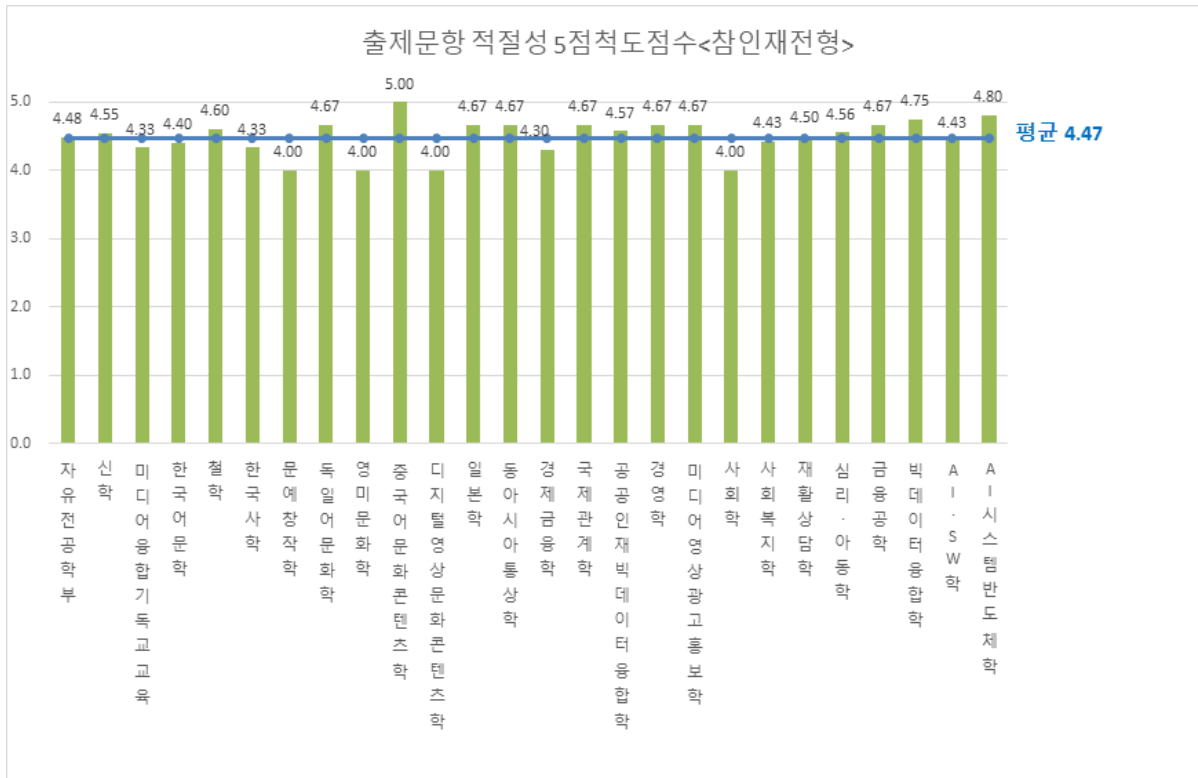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126	54.1	84	42.6
적절하다	91	39.1	95	48.2
보통이다	16	6.9	16	8.1
적절하지 않다	0	0.0	2	1.0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0	0.0
합계	233	100	197	100



10-1) 10번 문항(면접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참인재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47(5점 만점)의 높은 결과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14	12	1			27	4.48
신학	7	3	1			11	4.55
미디어융합기독교교육	2	4				6	4.33
한국어문학	2	3				5	4.40
철학	3	2				5	4.60
한국사학	5	2	2			9	4.33
문예창작학	1	5	1			7	4.00
독일어문화학	4	2				6	4.67
영미문화학	2	4	2			8	4.0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4					4	5.0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1	2	1			4	4.00
일본학	4	2				6	4.67
동아시아통상학	4	2				6	4.67
경제금융학	5	3	2			10	4.30
국제관계학	4	2				6	4.67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4	3				7	4.57
경영학	8	4				12	4.67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6	3				9	4.67
사회학	2	1	2			5	4.00
사회복지학	3	4				7	4.43
재활상담학	3	3				6	4.50
심리·아동학	6	2	1			9	4.56
금융공학	2	1				3	4.67
빅데이터융합학	3	1				4	4.75
AI·SW학	23	20	3			46	4.43
AI시스템반도체학	4	1				5	4.80
총합계	126	91	16	0	0	233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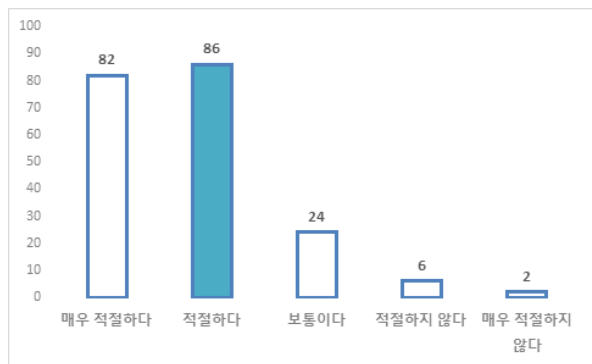
⇒ 전체 모집단위(26개 전공)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음.



<참인재전형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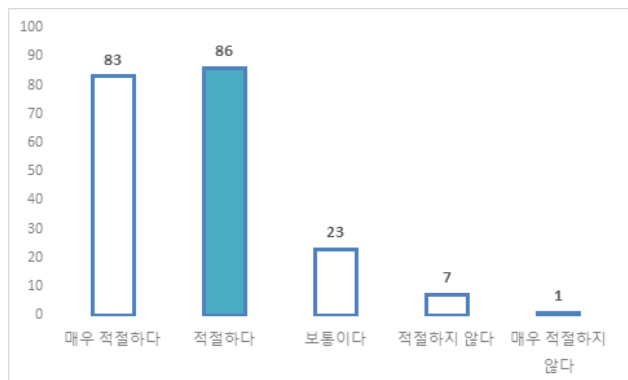
11-1) 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84.0%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82	41.0	75	38.5
적절하다	86	43.0	98	50.3
보통이다	24	12.0	19	9.7
적절하지 않다	6	3.0	3	1.5
매우 적절하지 않다	2	1.0	0	0.0
합계	200	1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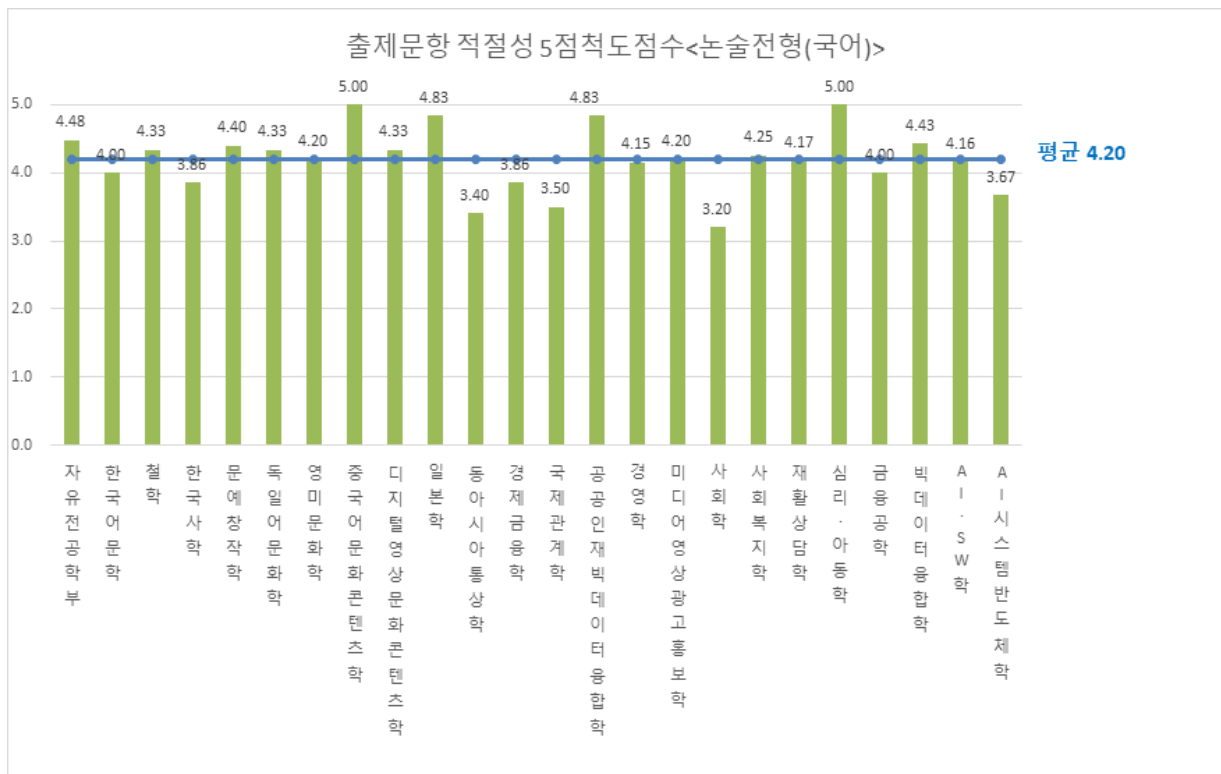
11-2) 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84.5%를 차지함.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83	41.5	72	36.9
적절하다	86	43.0	100	51.3
보통이다	23	11.5	21	10.8
적절하지 않다	7	3.5	2	1.0
매우 적절하지 않다	1	0.5	0	0.0
합계	200	100	195	100



11-3) 11-1번 문항(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논술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20(5점 만점)의 높은 결과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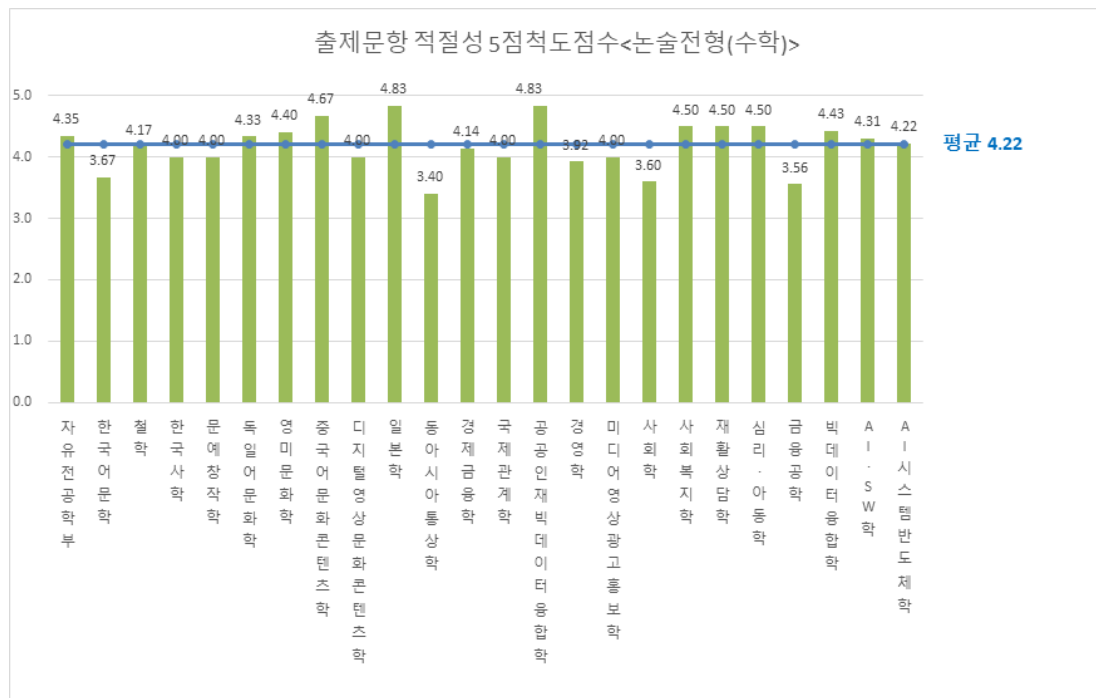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12	10	1			23	4.48
한국어문학		3				3	4.00
철학	3	2	1			6	4.33
한국사학	1	4	2			7	3.86
문예창작학	3	1	1			5	4.40
독일어문화학	1	2				3	4.33
영미문화학	2	2	1			5	4.2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6					6	5.0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1	2				3	4.33
일본학	5	1				6	4.83
동아시아통상학		3	1	1		5	3.40
경제금융학		6	1			7	3.86
국제관계학	1	1	1	1		4	3.50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5	1				6	4.83
경영학	5	7			1	13	4.15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2	2	1			5	4.20
사회학	1	1	1	2		5	3.20
사회복지학	2	1	1			4	4.25
재활상담학	2	3	1			6	4.17
심리·아동학	4					4	5.00
금융공학	3	5			1	9	4.00
빅데이터융합학	4	2	1			7	4.43
AI-SW학	16	26	6	1		49	4.16
AI시스템반도체학	3	1	4	1		9	3.67
총합계	82	86	24	6	2	200	4.20



<논술전형(국어)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11-4) 11-2번 문항(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논술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22(5점 만점)의 높은 결과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11	9	3			23	4.35
한국어문학		2	1			3	3.67
철학	3	2		1		6	4.17
한국사학		7				7	4.00
문예창작학	1	3	1			5	4.00
독일어문화학	1	2				3	4.33
영미문화학	2	3				5	4.4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4	2				6	4.67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3				3	4.00
일본학	5	1				6	4.83
동아시아통상학	1	1	2	1		5	3.40
경제금융학	2	4	1			7	4.14
국제관계학	2	1		1		4	4.00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5	1				6	4.83
경영학	4	6	1	2		13	3.92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2	1	2			5	4.00
사회학	1	1	3			5	3.60
사회복지학	3		1			4	4.50
재활상담학	3	3				6	4.50
심리·아동학	3		1			4	4.50
금융공학	1	6		1	1	9	3.56
빅데이터융합학	4	2	1			7	4.43
AI·SW학	20	24	5			49	4.31
AI시스템반도체학	5	2	1	1		9	4.22
총합계	83	86	23	7	1	200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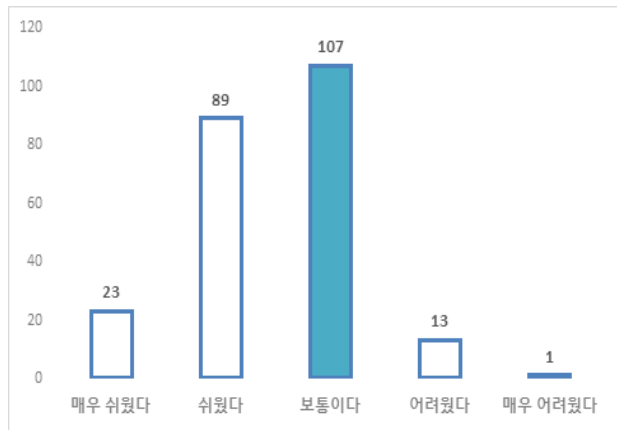
<논술전형(수학)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한 적절성 판단 5점 척도 결과 요약>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비고
면접	4.47 / 5.00	4.32 / 5.00	전년도대비 0.15 ↑
논술(국어)	4.20 / 5.00	4.26 / 5.00	전년도대비 0.06 ↓
논술(수학)	4.22 / 5.00	4.24 / 5.00	전년도대비 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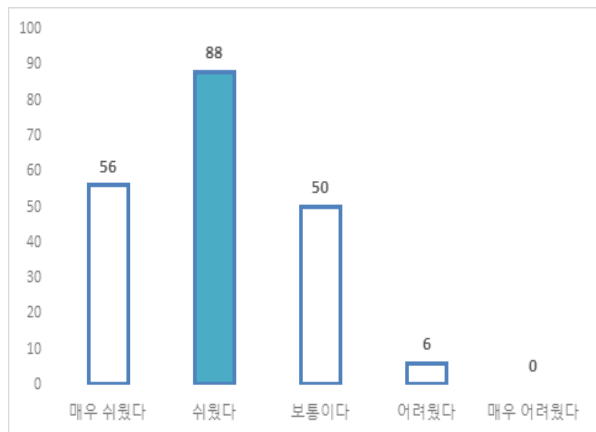
12) 면접고사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립적 응답(보통이다)이 가장 많았으나, 긍정의 응답(쉬웠다)이 부정의 응답(어려웠다)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긍정의 응답이 48.1%, 부정의 응답이 6.0%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23	9.9	21	10.7
쉬웠다	89	38.2	74	37.6
보통이다	107	45.9	96	48.7
어려웠다	13	5.6	6	3.0
매우 어려웠다	1	0.4	0	0.0
합계	233	100	1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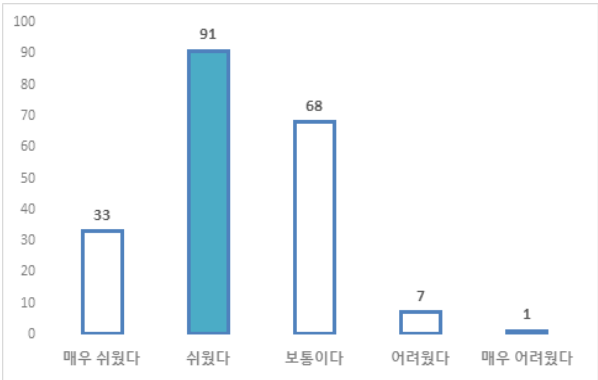
13-1) 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쉬웠다' 응답(44.0%)이 가장 많았으며, 긍정의 응답(쉬웠다) 또한 부정의 응답(어려웠다)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긍정의 응답이 72.0%, 부정의 응답이 3.0%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56	28.0%	36	18.5%
쉬웠다	88	44.0%	67	34.4%
보통이다	50	25.0%	69	35.4%
어려웠다	6	3.0%	22	11.3%
매우 어려웠다	0	0.0%	1	0.5%
합계	200	10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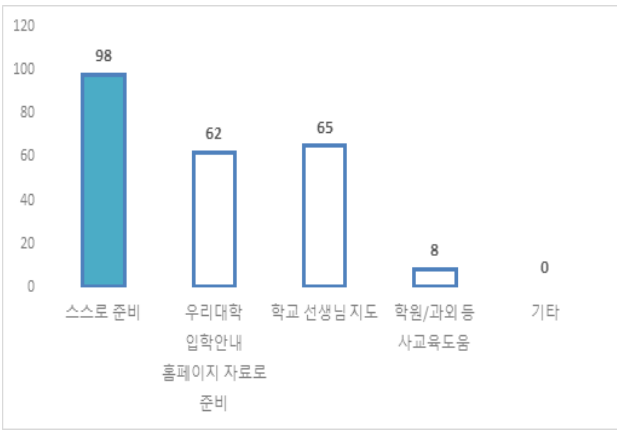
13-2) 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쉬웠다', '보통이다', '매우 쉬웠다' 순으로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응답이 62.0%, 부정의 응답이 4.0%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33	16.5	28	14.4
쉬웠다	91	45.5	86	44.1
보통이다	68	34.0	63	32.3
어려웠다	7	3.5	18	9.2
매우 어려웠다	1	0.5	0	0.0
합계	200	1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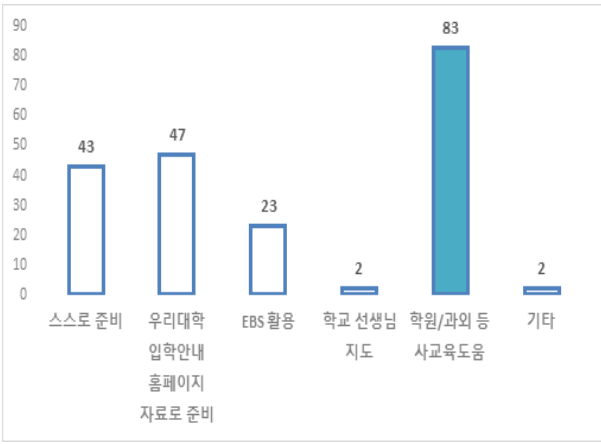
14) 면접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응답으로 스스로 준비(42.1%), 학교 선생님의 지도(27.9%), 우리대학 입학안내 공개자료 토대로 준비(26.6%)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사교육 도움은 3.4%에 불과함. 이를 토대로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스스로 준비	98	42.1	63	32.0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	62	26.6	57	28.9
학교 선생님 지도	65	27.9	67	34.0
학원/과외 등 사교육 도움	8	3.4	9	4.6
기타	0	0.0	1	0.5
합계	233	100	1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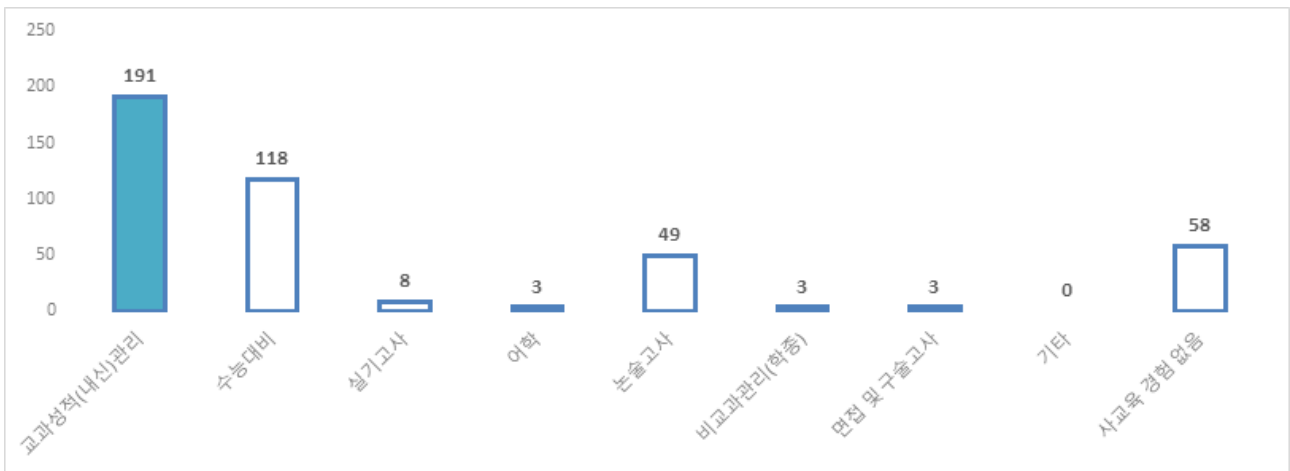
15) 논술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응답으로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 도움을 받아 준비한 학생(41.5%),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로 준비(23.5%), 스스로 준비(21.5%)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스스로 준비	43	21.5	61	31.3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	47	23.5	41	21.0
EBS 활용	23	11.5	21	10.8
학교 선생님 지도	2	1.0	3	1.5
학원/과외 등 사교육 도움	83	41.5	68	34.9
기타	2	1.0	1	0.5
합계	200	100	1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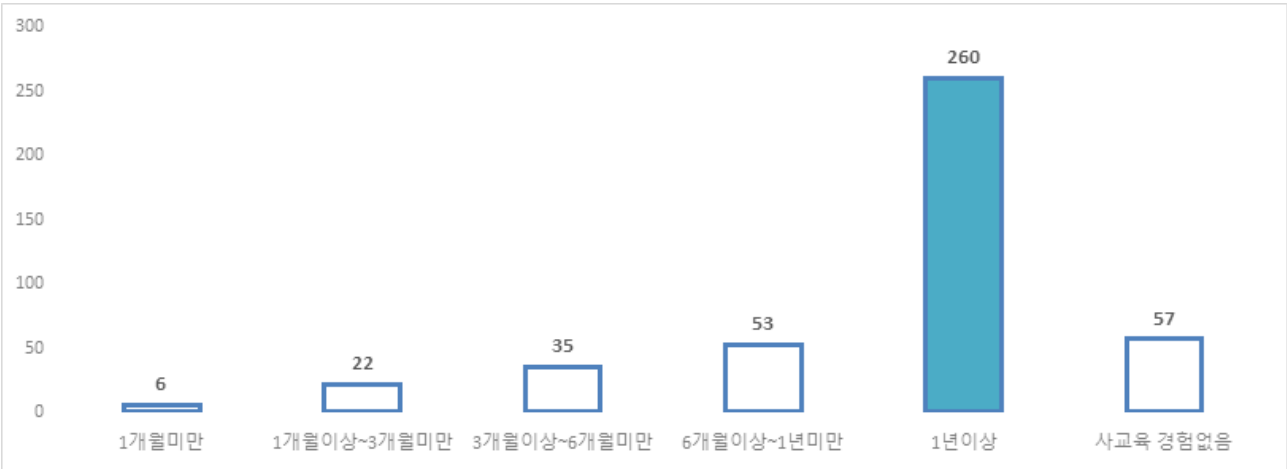
16)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을 받은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과성적(내신)관리(44.1%), 수능대비(27.3%)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면접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교과성적(내신)관리가 목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58.8%)이었으며, 논술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수능대비가 목적인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음. 또한 상대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체		면접		논술		전체		면접		논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교과성적(내신)관리	191	44.1	137	58.8	54	27.0	171	43.6	133	67.5	38	19.5
수능대비	118	27.3	32	13.7	86	43.0	122	31.1	15	7.6	107	54.9
실기	8	1.8	7	3.0	1	0.5	3	0.8	2	1.0	1	0.5
어학	3	0.7	3	1.3	0	0.0	1	0.3	1	0.5	0	0.0
논술	49	11.3	1	0.4	48	24.0	47	12.0	4	2.0	43	22.1
비교과관리(학생부종합)	3	0.7	1	0.4	2	1.0	2	0.5	2	1.0	0	0.0
면접/구술	3	0.7	2	0.9	1	0.5	5	1.3	4	2.0	1	0.5
기타	0	0.0	0	0.0	0	0.0	1	0.3	1	0.5	0	0.0
사교육 경험 없음	58	13.4	50	21.5	8	4.0	40	10.2	35	17.8	5	2.6
합계	433	100	233	100	200	100	392	100	197	100	195	100



17)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실시하였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1년 이상(60.0%), 사교육 경험없음(13.2%),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2.2%) 순의 분포를 보임. 상기 16번 항목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대학과 관련 있는 대학별고사에서는 사교육 경험이 적으나, 수능 및 교과 성적을 위해서 사교육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체		면접		논술		전체		면접		논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1개월미만	6	1.4	2	0.9	4	2.0	7	1.8	3	1.5	4	2.1
1개월이상~3개월미만	22	5.1	5	2.1	17	8.5	23	5.9	9	4.6	14	7.2
3개월이상~6개월미만	35	8.1	13	5.6	22	11.0	26	6.6	8	4.1	18	9.2
6개월이상~1년미만	53	12.2	20	8.6	33	16.5	51	13.0	17	8.6	34	17.4
1년이상	260	60.0	143	61.4	117	58.5	243	62.0	123	62.4	120	61.5
사교육 경험없음	57	13.2	50	21.5	7	3.5	42	10.7	37	18.8	5	2.6
합계	433	100	233	100	200	100	392	100	197	100	195	100



18) [추가질문] 면접 또는 논술고사를 응시하게 된 주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음. **참인재 전형** 응시자에게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입시결과(학생부 교과성적) 제공의 영향이 가장 컸음(42.5%). 논술전형 응시자의 경우 논술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 지원한 학생들(37.0%)이 가장 많았음. 또한 2026학년도 전형방법 변경(논술: 논술비중 확대(교과비중 축소), 면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에 의한 지원 학생들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논술 13.5%, 면접 8.2%)

***참인재전형(면접)**

구분	응답자	비율(%)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교과성적)와 적절해서	99	42.5%
면접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면접문제 사전공개로 준비기간 확보)	67	28.8%
학생부 부담이 없어서(생기부 질문 없음)	31	13.3%
전형방법이 변경되어서(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	19	8.2%
면접 일정(10월 11일)이 적절해서	5	2.1%
기타	12	5.2%
합계	233	100.0%

***논술전형(논술고사)**

구분	응답자	비율(%)
논술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	74	37.0%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교과성적)와 적절해서	42	21.0%
학생부 부담이 없어서	31	15.5%
전형 방법이 변경되어서(논술비중 확대(80%), 반영과목수 변경 등)	27	13.5%
논술 일정(11월 30일)이 적절해서	21	10.5%
담임선생님의 추천	2	1.0%
기타	3	1.5%
합계	200	100.0%

19) [추가질문] 서술형(자유기재) 항목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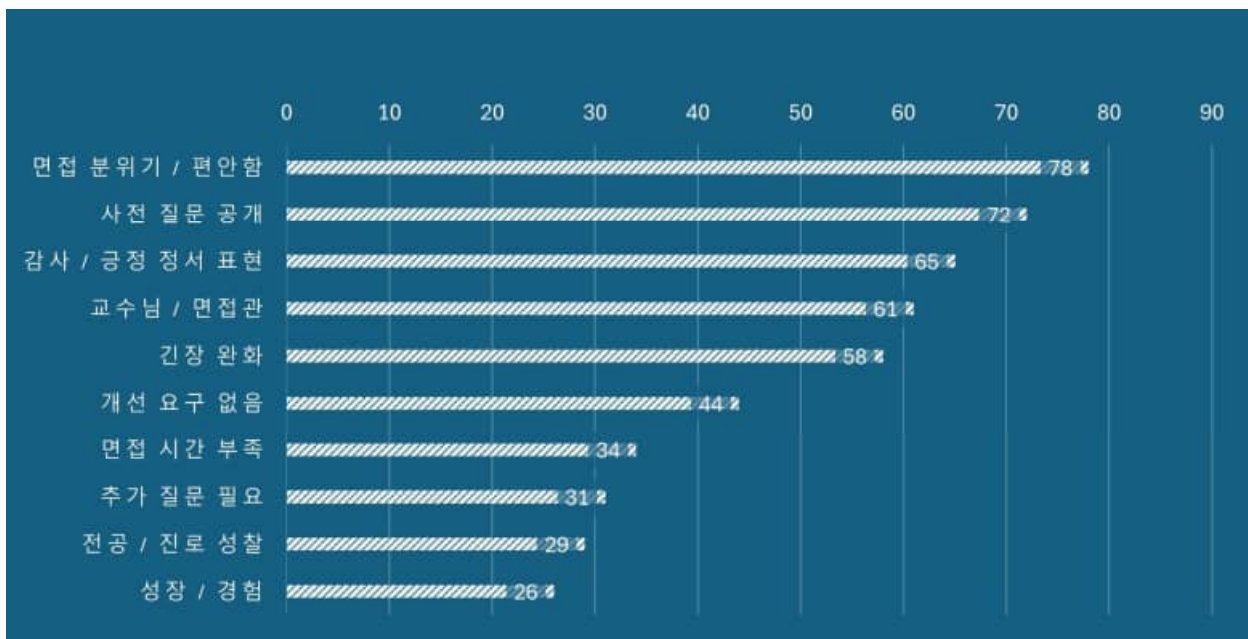
✓ 문항 내용

[면접/논술고사]를 통해 느낀 점 또는 향후 우리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1. [면접고사] 응시자 의견 분석 - 총 78명 응답

- 키워드 빈도 수치 요약 (상위 항목)

순위	키워드 묶음	빈도	해석
1	면접 분위기 / 편안함	78	전형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2	사전 질문 공개	72	부담 완화·공정성 인식의 핵심 제도
3	감사 / 긍정 정서 표현	65	전형 전반에 대한 신뢰·호감
4	교수님 / 면접관	61	사람 중심 전형으로 인식
5	긴장 완화	58	첫 면접 수험생 배려 효과
6	개선 요구 없음	44	현행 전형에 대한 수용도 높음
7	면접 시간 부족	34	가장 대표적인 개선 요구
8	추가 질문 필요	31	변별력·심층 평가 요구
9	전공 / 진로 성찰	29	전형의 교육적 효과
10	성장 / 경험	26	인생 경험으로 인식



✓ 서술형 문항 키워드 분석 요약(면접고사)

면접 분위기, 질문 사전 공개, 교수진의 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편안함'과 '공정성'이 전형의 핵심 강점으로 확인됨. 반면, 질문 난이도(변별력) 및 추가 질문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존재하여 향후 전형 고도화를 위한 보완 요소로 활용 검토

2. [논술고사] 응시자 의견 분석 - 총 65명 응답

1) 종합 키워드 빈도

(1) 난이도·변별력 관련 핵심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건)	전체 응답 대비 비중	해석
1	쉬움 / 너무 쉬움	58	약 34%	전반적 난이도 인식
2	난이도 상향 / 더 어렵게	52	약 31%	개선 요구 핵심
3	변별력(부족)	41	약 24%	선발 기능 문제 인식
4	적절 / 괜찮음	29	약 17%	현행 유지 의견
5	난이도 조절 필요	26	약 15%	단계적 개선 요구

(2) 전형 인식 관련 키워드

키워드	빈도(건)	해석
내신 약해도 가능	22	전형 장점
기회 / 희망	20	긍정적 정서
사교육 없이 가능	18	접근성
논술 전형 감사	27	제도 존치 지지

2) 과목별 키워드 빈도

(1) 수학

키워드	빈도(건)	비고
수학 문제 언급	64	전체 중 최다 언급 과목
수학이 쉬움	47	보완 인식 다수
킬링 문제 부족	18	상위권 변별
마지막 문제만 어려움	14	난이도 편중
EBS·수특·수완	16	준비 난이도 낮음 근거

(2) 국어

키워드	빈도(건)	비고
국어 문제 언급	33	수학 대비 낮음
국어 쉬움	21	부담 적음 인식
고등학교 수준	17	난이도 인식
적절함	19	수용적 평가

✓ 서술형 문항 키워드 분석 요약(논술고사)

‘수학 난이도’, ‘쉬움’, ‘변별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논술 전형의 전형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고, 접근성·공정성·기회 제공 기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는 인식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참여한 내부·외부평가위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

구분	설문대상인원	응답인원	응답율(%)
선행학습영향평가 내부·외부 평가위원	내부 평가위원	2	100.0
	외부 평가위원	3	100.0
계	5	5	100.0

2)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4)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5)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8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100.0	0.0	0.0

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7)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8)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8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80.0	2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80.0	20.0	0.0

9)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8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80.0	2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80.0	20.0	0.0

10)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내부·외부평가위원이 작성한 종합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내부·외부평가위원 작성 의견 - ①면접(참인재전형) 관련

- ▶ (내부위원 유○○) 면접문항 사전공개가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100%(‘매우 그렇다’ 84.1%, ‘그렇다’ 15.9%)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사교육의 영향이 매우 낮은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음이 밝혀짐(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3.4%). 공개문항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인해, 실제 면접은 암기 능력을 확인하는 것에 수렴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이것이 변별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므로 공개문항에 더해 비공개 질문 1문항을 더 하는 구조로 변별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금 늘리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 (내부위원 윤○○) 문항이 적절하여, 고등학생이 공개된 문항을 조사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 (외부위원 유○○) 한신대학교는 면접을 공통 문항인 기초소양분야와 모집단위별 문항인 전공적성분야를 각각 1문항씩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진로와 관심 분야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예컨대 기초소양분야는 진로와 관련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였다. 전공적성분야는 대학에서의 학습 계획과 지원 동기를 비롯해, 꿈과 비전,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 사회 기여, 감명 깊게 있는 책, 최근 쟁점 및 이슈, 중요한 역량, 해결 방안과 의견 제시 등으로 지원자의 경험과 견해를 밝히는 문항들이었다. 이에 한신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고사 문항은 매우 적절한 출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출제였다고 본다.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참인재 전형의 면접 문항은 이와 같은 경향으로 출제하면 좋을 것 같다.
- ▶ (외부위원 한○○) 참인재전형의 면접 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준비 및 한신대 홈페이지 자료 참고 비율이 68.7%이고 사교육 도움은 3.4%에 불과했다. 또한 면접 문항의 공통 문제 및 전공적성분야 문제가 몇 년간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었고, 질문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이라면 큰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와 공교육 내에서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면접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다고 생각됨.
- ▶ (외부위원 최○○) - 면접 문항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수업과 독서 활동,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함. - 철학 전공의 AI 발전의 영향,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의 AI 행정 사례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와 전공을 결합한 문항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회 이슈-교과 연계형문항을 타 전공으로도 확대하여,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고교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정착시키면 좋을 것 같음. - AI시스템 반도체학과와 AI-SW학과수준의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와 정보, 정보 윤리 단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특히 AI-SW학부의 윤리 문제는 정보 윤리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없이 교과 과정 내의 활동으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됨.

내부·외부평가위원 작성 의견 - ②논술전형 관련

- ▶ **(내부위원 유○○)** 모의고사/답안/기출 공개가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이 78.0%를 차지함. 이는 공개자료로 인한 효과라고 여겨짐. 국어 논술의 경우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89.0%(‘매우 충분’ 51.5%, ‘충분’ 37.5%), 교육과정 적절성에 대한 응답이 긍정 84.0%로 확인됨. 이로써 시험 시간과 교육과정 적절성을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핵심 이슈는 문항이 쉽다는 것인데, 이는 변별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변별력을 위해서는 기본 요약/구조화(기본점), 비교·평가(중간 변별), 적용·비판(상위 변별) 등으로 고도화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내부위원 윤○○)** 문항이 적절하여, 고등학생이 평소에 공부하고 수능에 대비하였다면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 **(외부위원 유○○)** 한신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고사는 약식 논술로 출제 범위가 국어 영역은 ‘문학과 독서’, 수학 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로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과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여 지원자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본다. 즉, 국어 영역은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과 용어 추론 능력,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고, 수학 영역은 로그 함수, 등차수열, 극대/극소, 함수의 연속, 삼각함수, 지수법칙, 부정적분과 정적분, 미분가능과 연속,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등에서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수능시험을 대비한 지원자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난이도는 설문조사에서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국어 영역은 28.0%로 2025학년도에 47.2%이었던 것보다 19.2%p 낮아졌고, 수학 영역은 38.0%로 2025학년도에 41.5%이었던 것보다 3.5%p 낮아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신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적절하게 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시킬 요인도 거의 없었던 출제였다고 본다.
- ▶ **(외부위원 한○○)** 논술전형의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논술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국어 84.0%, 수학 84.5%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논술 문항들이 단위 고등학교에서 누구나 배우는 과목의 교과서 및 교육방송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어 문제의 경우 그 지문의 길이가 충분히 시간내에 이해 가능한 난이도 수준으로 판단되며, 발문 역시 명확하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았다. 수학의 경우 수학1, 수학2 등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중하 수준의 문제로 출제 되었으므로 고등학교의 국어와 수학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들이라면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 **(외부위원 최○○)** - 국어와 수학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의 생소한 개념이나 대학 수준의 선행 학습을 요구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학교 수업과 EBS 연계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전형으로 판단 됨. -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이 명확하며 예상 소요 시간 또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 논술고사로서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됨. - 국어의 경우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학습을 유도하였고 채점 기준 또한 어절 제한이나 문맥 호응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 됨. - 수학의 경우 단순 결과 도출보다는 진수 조건 확인, 일반항 도출, 미분 계수 계산 등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어, 고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사고력’ 측정에 부합함.

1. 출제 및 검토 개선

- 1) 출제본부 내 문항카드 검증 완료 노력
- 2) 출제위원의 고교 교육과정 및 출제근거(성취기준)에 대한 숙지 및 이해 노력
- 3) 선행학습영향평가 지침 준수 노력 (매년 개정된 보고서 양식 작성 준수)

2. 출제 후 점검 강화

- 1) 문항별 난이도 검증 강화(계열 간 유불리 파악)
- 2) 출제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 검증
- 3) 신입생 설문조사(논술, 면접) 참여 독려로, 응답율 상승 및 신뢰성 확보 노력

3.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논술 및 면접전형 모집인원의 변화**

수험생들에게 입시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7학년도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각 전형(특히, 논술 및 면접)의 특징에 맞춰 다양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잘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을 설계하고 보완함. (단, 학제 개편 또는 대교협 심의 결과 등에 의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자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수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①	주요 사항 ②	주요 사항 ③
수시모집 비중 유지	논술전형 비중 축소	면접전형 비중 확대

- [표1] 모집 비율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비고
수시모집 : 89.9% 정시모집 : 10.1%	수시모집 : 89.9% 정시모집 : 10.1%	수시모집 비중 유지

- [표2] 논술 전형 모집인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비고
261명	231명	논술전형 비중 축소

- [표3] 참인재 전형 모집인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비고
296명	315명	면접전형 비중 확대

1.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시험문제**[1교시 10:00 - 11:20]****[2교시 14:30 - 15:50]**

성명		수험번호			2	7	0	1	1			
-----------	--	-------------	--	--	----------	----------	----------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는 총 14페이지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해야 하고,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국 어 영 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으나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왕조 국가에서 선양은 불가능했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다. 수선은 선왕이 생전에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선양과 유사하였다.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쳤다.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계자가 지닌 겸양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殿)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문(門)에서 행해졌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국상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반정은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이고, 대비의 승인을 통해 공식화됐다.

*대보: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1. <보기>는 윗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민수: 유교 국가에서는 (①)(이)야말로 왕위 계승의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 조선은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를 승계하면서도 (①)이/가 지닌 가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지.

미나: 수선은 결국 혈통을 왕위 계승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면서, 유교적 덕목을 고려한 왕위 계승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왕족 가운데에서 통치자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를 고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지.

영미: 사위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해. 그래서 즉위식이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의례인 (②)의 일부로 다뤄진 거야. 궁궐의 전(殿)이 아닌 문(門)에서 즉위식을 진행했던 것도 그 때문이지. 이로써 새 임금의 효심을 드러낼 수 있었어.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①)(이)라는 방식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이는 후계자가 선왕으로부터 직접 자리를 물려준다는 전교*를 받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태종은 전교에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훗날 세종)을 세자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태종은 세자가 총명하고 성품이 공손하며, 효를 행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기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태종은 이 같은 전교와 함께 대보를 세자에게 전달하였고, 세자는 사양하는 글과 함께 대보를 다시 태종에게 바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세자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덕성 가운데 특히 (②)을/를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자는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전교: 임금이 명령을 내림. 혹은 그 문서.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 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을 해 준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B]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 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최저 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 보장 연금형은 수령 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업무 처리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의 [A]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기〉

- 청년 갑은 2014년에 취직하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었고, 개인 차원에서 연금 저축 제도에도 가입하여 2025년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향후 갑이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갑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간의 소득을 (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갑은 연금 저축 제도를 통해 (②)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 55세까지 연금 저축 계좌를 유지할 계획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어절, ②는 세 음절로 쓸 것).

〈보기〉

△△국은 사회 수당형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의 기초 연금 제도인 (①) (으)로 변경하였다. △△국에 사는 노인 을은 과거의 경제 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2022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 을이 받았던 연금이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가 변경된 이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②)에 대한 논란이 있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드 방주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례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과 의례를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를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들이 구성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집단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일상적인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교차한다는 것이다.

방주네프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분리 → 전이 → 통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분리 단계는 의례의 입문자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일상적 시·공간과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이다. 전이 단계에서는 모호성이나 혼동 또는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드러낸다. 방주네프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서 입문자는 사회에 통합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비로운 탄생: 입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통과 의례를 ‘격리 → 시련 → 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통과 의례에는 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다.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에서부터 그 증거가 발견되지만 소년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소년의 성인식 의례들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 놓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지만 소년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5.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구분	아르놀드 방주네프	미르체아 엘리아데
통과 의례의 단계	• 분리 → 전이 → 통합	• 격리 → 시련 → 재생
통과 의례에 대한 견해	• 통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함 • 통과 의례를 (①)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주목함 • 통과 의례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했지만, 통과 의례에서 발견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	•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비판함 • 통과 의례를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봄 • 통과 의례에 내재한 (②)을/를 주목한 결과 남성을 문화적 존재로,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해석함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아프리카 콩고의 부족은 ‘응킴바’라는 사춘기 의례를 치른다. 응킴바에서 사춘기 소년들은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 격리되며 그동안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되는 사춘기 소년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 옷을 벗고 다니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물에 몸을 씻고 오두막을 태워 버린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행동한다. 부족 사람들은 응킴바를 거친 소년들이 주술적, 종교적으로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응킴바를 치르는 소년들은 살아 있으면서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남성이면서 비(非)남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호성과 혼동 속에서 지내는 셈이다. 방주네프에 따르면 이는 통과 의례 중 (①) 단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응킴바를 마친 후 특별한 자질을 지닌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것은 이 단계에서 (②)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적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떨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파랑: 작은 물결과 큰 물결.

(나)

[앞부분 줄거리]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전셋집으로 이사한다. 가난을 인정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맡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산다.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그와 동거를 시작한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견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일이었다.

[A]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건니? 다 말도 못 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퐁퐁 부딪쳐 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①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게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혀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 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층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삼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곤 확실히 다르다. 전연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돈을 선뜻 쥐 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들었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보는 부자들에게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아버진 좋은 분이야. 요즈음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B 주기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한다.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자존심 강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즈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김새를 타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썽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걸 끄적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갇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가엾게시리,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얼룩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날림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 등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흠쳐 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르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아흔아홉 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흠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캄캄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반자지: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를 바르는 종이. 흔히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박혀 있음.

7. <보기>는 심상(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가)에서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행을 하나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보 기> —

감각적 언어는 사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보거나 듣거나 만져 보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이처럼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심상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으로 세분된다. 또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 예컨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감각(청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다른 감각(시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8점)

8. 윗글 (가)의 시적 화자가 대상(그녀)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쓰시오.

(8점)

9. 윗글 (나)의 ㉠은 복선적 진술로 이후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그가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를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8점)

10.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나)의 [B]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는 가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가 외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부가 또 다른 부를 낳는 부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부유층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 데 반해, 부를 창출할 자본과 수단을 갖지 못한 빈민층은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이러한 빈부 격차의 확대 및 심화 과정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부유층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①)마저 훼손당한 빈민층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었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①: _____ (8점)

수 학 영 역

11. 방정식 $\log_3(5x+3)=2+\log_3(x-1)$ 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 수열 $\{a_n\}$ 은 첫째항이 10이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a_n-\frac{2}{3}$ 를 만족시킨다.
 $a_n > 0$ 이 되는 자연수 n 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3. 함수 $f(x) = -x^3 + ax^2 + 6x - 3$ 이 $x = 2$ 에서 극대일 때, 함수 $f(x)$ 의 극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14. 함수 $f(x) = \begin{cases} x^2 - 3 & (x < 3) \\ x + a & (x \geq 3) \end{cases}$ 에 대하여 함수 $\{f(x) - 1\}^2$ 이 $x = 3$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0 \leq x \leq 6$ 에서 함수 $y = a \sin \frac{\pi(x-3)}{3}$ 의 그래프와 두 직선 $|y| = \frac{3}{2}$ 의 그래프는 네 점에서 만난다.
네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6일 때 양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시험문제

[1교시 10:00 - 11:20]

[2교시 14:30 - 15:50]

성명		수험번호			2	7	0	1	1			
----	--	------	--	--	---	---	---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는 총 14페이지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해야 하고,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국 어 영 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뉜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심의는 어떤 안전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과서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 아니라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결정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 주어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심의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의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피시킨’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칭하였다. 피시킨은 이처럼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그는 사안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을 둔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모두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이에 대안으로서 피시킨은 공론 조사를 제안하였다. 공론 조사는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공론 조사에서는 맨 먼저 숙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그다음에는 숙의의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다음에는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 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만 한다고 비판한다. 또 목적에 따라 공론 조사의 결과가 취사선택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은 제거되고 의사 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두 어절로 쓰시오.

〈보기〉

심의의 장점	• 정보의 취합 과정에서 정보의 양이 증대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함 •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임 • 법과 제도 정착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인 (①)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심의의 한계	• 의사 결정이 지연됨 •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함 • (②)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의 결과가 옳지 않을 수도 있음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시에서는 관내에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추가로 더 유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여론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원전을 추가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35%, 반대하는 입장이 54%였다. 이에 △△시는 공론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절차에 따른 공론 조사 결과 원전을 추가로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59.5%로, 반대 입장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한편, △△시가 추구하는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 원전 유치가 35.5%, 원전 확대가 9.7%로 시민들이 제출한 기존의 여론 조사와 변화가 없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원전을 추가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에서 △△시가 공론 조사를 수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그렇지만 원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자는 결과와 추가 유치를 찬성한다는 결과 중, 특정한 결과만을 선택한 것이기에 일부 주민은 이 지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시가 목적을 정해둔 상태에서 공론 조사의 결과를 (①)했다는 것이다. 추가 원전 유치라는 결정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숙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②) (으)로 원전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았겠다고 말하였다.

①: (4점)

②: (4점)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 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이산화 탄소를 운반해 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 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에크모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 넣게 된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로 넣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크모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두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겨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①)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받고 혈액 내부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산화기에서 이를 대신한다.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밀어 넣게 된다. 펌프는 심장이 (②)을/를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혈액 도관은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4. <보기>는 윗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은우: 에크모의 산화기 내부에 있는 (①)이/가 분압차를 이용해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키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였군.
 보라: VA 방식은 심장과 폐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활용하고,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쳐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거구나.
 중기: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쳐 (②)(으)로 넣어 준다는 점에서 VA 방식과 차이가 있네.
 지은: VA 방식과 VV 방식 모두 신체 외부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군.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먼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먼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율타리 엮는 데 썰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되?”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율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끼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뿜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썩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엇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허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5.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를 윗글에서 찾아 단어로 쓰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추론해서 쓰시오(②는 ‘구체적’과 같이 ‘-적’으로 끝나는 세 음절의 단어로 쓸 것).

〈보 기〉

「동백꽃」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①야속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가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이 이 소설의 재미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고 지주에게 땅을 빌렸다. 이때 소작료를 관리하고 소작농의 농사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름이었다. 마름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가진 자이고 그 마름에 의지하여 사는 소작인은 못 가진 자이다. 못 가진 자는 의식에서나 행동에서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세상 물정이다. 즉 어리숙하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나’의 행동의 이면에는 (②)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한다.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 _____ (4점) ②: _____ (4점)

수 학 영 역

6. 부등식 $\left(\frac{1}{9}\right)^x < 3^{10-4x}$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7.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0^x f(t) dt = 2x^3 - 3x^2 \int_0^1 f(t) dt$$

를 만족시킬 때, $f(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8. 두 자연수 m, n 의 순서쌍 (m, n) 이

$$\log_{2n} \sqrt{m} + 2\log_{2n} m = \frac{15}{4}$$

를 만족시킬 때, $m+n$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9. 수열 $\{a_n\}$ 이 $n \geq 2$ 인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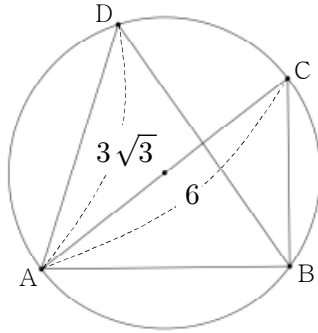
$$\sum_{k=1}^{n-1} (a_k - a_{k+1}) = \sum_{k=1}^{n-1} \frac{k}{n-1}$$

를 만족시킨다. $a_1 = 25$ 일 때, a_{40}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_n\}$ 이 있다. 수열 $\{a_n^2\}$ 의 첫째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할 때, $S_n - S_{n-2} = 32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1. 함수 $f(x) = \begin{cases} x^3 + x^2 - x + 3 & (x < 1) \\ ax^2 + b & (x \geq 1) \end{cases}$ 가 $x=1$ 에서 미분가능할 때, $a-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는 상수이다.)

12.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ABC, ABD가 있다.



다음은 $\overline{AD} = 3\sqrt{3}$ 이고 $\sin(\angle CAB) = \frac{\sqrt{3}}{3}$ 일 때, $\overline{BD}$ 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선분 AC가 원의 지름이므로 삼각형 ABC는 $\angle B = \frac{\pi}{2}$ 인 직각삼각형이다.

$\sin(\angle CAB) = \frac{\sqrt{3}}{3}$ 이므로 $\overline{BC} = \boxed{\text{(가)}}$ 이고 $\overline{AB} = \boxed{\text{(나)}}$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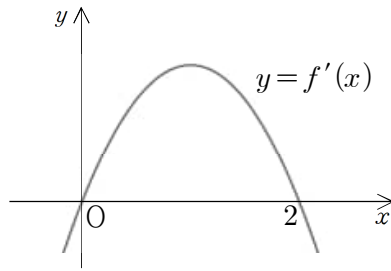
$\angle ADB = \angle ACB$ 이므로 $\cos(\angle ADB) = \boxed{\text{(다)}}$ 이다.

$\overline{BD} = x$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boxed{\text{(라)}}x + 3 = 0$ 을 얻는다.

그러므로 $x = \dots\dots$. (이하 생략)

13.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y=f'(x)$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0)=f'(2)=0$ 이다.



함수 $f(x)$ 의 극솟값이 -1 이고 극댓값이 3 일 때, $f(-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4. $0 \leq x \leq 2\pi$ 에서 방정식 $\sin x = \cos 4x$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2 - (x^2 + 1)f(x) + x^2 = 0$

(나) 함수 $f(x)$ 는 $x = -1$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다) 함수 $f(x)$ 의 최솟값은 0이다.

$f(-2) + f'(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 2026학년도 참인재전형 면접문제

기초소양분야	
공 통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전공적성분야	
자유전공학부	본인의 관심 분야를 소개하고, 자유전공학부 입학 후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지속하고자 하는지 자신만의 계획을 말해보시오.
신학	한신대학교 신학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인류사회에 신학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주세요.
미디어융합 기독교교육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기독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한국어문학	한국 문학작품 하나를 들어, 외국인에게 그 문학작품의 구체적인 특징과 아름다움을 설명한다고 가정하여 이야기해보시오.
철학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한국사학	한국사학 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한국사학이 어떤 학문이며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해보시오.
문예창작학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독일어문화학	우리 독일어문화학 입학 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대학생활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영미문화학	영미문화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영미문화학 공부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리있게 말해보시오.
중국어문화 콘텐츠학	중국어 배우려는 이유와 우리 전공 졸업 후 이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디지털영상 문화콘텐츠학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전공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배움으로 쌓은 전문성을 졸업 후에 어떻게 발휘하고 싶은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본학	최근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이슈)이나 현상 한 가지를 골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백락이나 의미,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등)을 말해보시오.
동아시아통상학	동아시아통상학 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 전공을 통해 쌓게 될 지식과 경험이 본인의 진로 목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말해보시오.
경제금융학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예컨대 카카오택시)은 일부 개인과 기업에게는 기회와 혁신을 가져오지만, 개인정보유출, 시장독점,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전공적성분야

국제관계학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조짐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시오.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	AI와 빅데이터가 행정과 공공정책에서 활용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영학	현재 AI 기술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미디어영상 광고홍보학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트렌드(숏폼, AI·디지털 콘텐츠, 소셜미디어 등) 중 본인이 주목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생각(선택한 이유,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학	지난 21대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 가운데 남녀간 투표 성향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20대 이하(18세~29세)였습니다(예컨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약 58% 투표했는데 반해, 남성은 약 24% 투표했다). 20대 이하 남녀의 정치적 지향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시오.
사회복지학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재활상담학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신체적/심리적 장애 모두 포함), 재활상담(사회적응, 직업, 정신건강)과 관련해 제기된 이슈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심리·아동학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심리학 전공 지망자로서 또는 아동학 전공 지망자로서 해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심리학 전공 지망 또는 아동학 전공 지망 중 택1)
금융공학	가상화폐에 대하여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빅데이터 융합학	현대의 경영환경과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관심있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그 사례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AI·SW학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XR콘텐츠, 디지털라이프케어(인지감성 컴퓨팅, 엠비언트컴퓨팅 등)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1) 선택한 분야에 대해 기본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선택한 분야가 앞으로 우리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3) 그리고 AI·SW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해보시오.
AI시스템 반도체학	본인이 직접 실험하거나 연구해보고 싶은 AI와 반도체 융합 주제는 무엇인가요?

3.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항카드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유교 국가, 선양, 수선, 사위, 반정, 덕과 공공성, 겸양, 국상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으나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왕조 국가에서 선양은 불가능했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다. 수선은 선왕이 생전에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선양과 유사하였다.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쳤다.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계자가 지닌 겸양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殿)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문(門)에서 행해졌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국상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반정은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이고, 대비의 승인을 통해 공식화됐다.

*대보: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문항>

1. <보기>는 윗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민수: 유교 국가에서는 (①)(이)야말로 왕위 계승의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 조선은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를 승계하면서도 (①)이/가 지닌 가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지.

미나: 수선은 결국 혈통을 왕위 계승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면서, 유교적 덕목을 고려한 왕위 계승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왕족 가운데에서 통치자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를 고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지.

영미: 사위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해. 그래서 즉위식이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의례인 (②)의 일부로 다뤄진 거야. 궁궐의 전(殿)이 아닌 문(門)에서 즉위식을 진행했던 것도 그 때문이지. 이로써 새 임금의 효심을 드러낼 수 있었어.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00-115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18-134		○

2) 교과서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02-103		○

5. 문항 해설

지문은 유교 국가에서 왕위 계승의 양상을 소개하고, 각각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지문에는 가장 유교적인 왕위 승계 방식인 선양과 그에 요구되는 덕과 공공성이라는 왕위 계승권자의 요건, 수선·사위·반정 등의 의미와 진행의 양상 등이 단락별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다.

이 문항은 지문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을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것이다. 민수의 발화는 유교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영미의 발화는 사위에 전제된 국왕의 죽음과 새로운 왕의 즉위식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글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해하면서 적절한 핵심 용어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 *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선양 ② 국상 ②에 ‘국상 의식’이라고 쓸 경우 문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므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선양 (4점)
- ② 국상 (4점) / 국상 의식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세종, 태종, 수선, 겸양, 전교, 덕성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1번과 동일.

<문항>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①)(이)라는 방식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이는 후계자가 선왕으로부터 직접 자리를 물려준다는 전교*를 받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태종은 전교에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훗날 세종)을 세자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태종은 세자가 총명하고 성품이 공손하며, 효를 행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기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태종은 이 같은 전교와 함께 대보를 세자에게 전달하였고, 세자는 사양하는 글과 함께 대보를 다시 태종에게 바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세자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덕성 가운데 특히 (②)을/를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자는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전교: 임금의 명령을 내림. 혹은 그 문서.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능력을 파악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5	100-115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18-134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02-103		○

5. 문항 해설

세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하는 방식은 지문에 제시된 즉위식의 방식 가운데 수선에 해당한다. 선왕이 살아 있는 동안 최고의 자질을 지닌 후계자를 고르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방식이 수선이다. 세종은 태종이 재위에 있는 동안 세자로 책봉되고, 태종이 내리는 교서를 받아 후계자로 공인된다. 태종은 세자에서 왕위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데, 세종은 이를 단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왕이 지녀야 할 덕성 가운데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항에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태종과 세종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수선 ② 겸양 ②에 공손 / 효도라고 쓴 경우 2점 인정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① 수선 (4점)

② 겸양 (4점) / 공손 (2점) / 효도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공적 연금, 국민연금, 재분배, 사적 연금, 연금 저축 제도, 세금 감면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A]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 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을 해 준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B]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 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최저 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 보장 연금형은 수령 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업무 처리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문항>

3.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의 [A]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 청년 갑은 2014년에 취직하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었고, 개인 차원에서 연금 저축 제도에도 가입하여 2025년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향후 갑이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갑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간의 소득을 (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갑은 연금 저축 제도를 통해 (②)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 55세까지 연금 저축 계좌를 유지할 계획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어절, 음절 등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16-13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36-146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17-118		○

5. 문항 해설

지문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기초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며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사적 연금 제도에는 연금 저축 제도가 있으며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청년 갑의 사례에 적용하여 공적, 사적 연금 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빈칸을 채워 넣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재분배 (4점) / 평준화 (4점) / 분배 (2점) ② 세금 감면 (4점) / 이자 (2점) ①에 ‘분배’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②에 ‘이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재분배 (4점) / 평준화 (4점) / 분배 (2점)
- ② 세금 감면 (4점) / 이자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기초 연금 제도,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 형평성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3번과 동일.

<문항>

4.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어절, ②는 세 음절로 쓸 것).

<보 기>

△△국은 사회 수당형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의 기초 연금 제도인 (①)(으)로 변경하였다. △△국에 사는 노인 을은 과거의 경제 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2022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 을이 받았던 연금이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가 변경된 이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②)에 대한 논란이 있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어절, 음절 등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16-13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36-146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17-118		○

5. 문항 해설

지문에서 [B] 단락은 다양한 기초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설명되어 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연금 제도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수당형,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저 소득 보장형, 수령 연금이 국가가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최저 보장 연금형이 있다. 이 문항은 노인 갑의 사례를 통해 기초 연금 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은 2022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형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의 ‘최저 소득 보장 연금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제도는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①은 변경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최저 소득 보장 연금형’이 답이 되어야 하며, ②는 이 제도의 문제가 되는 ‘형평성’이 답이 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최저 보장 연금형 (4점) / 최저 보장 연금 (4점) ② 형평성 (4점) / 대상자 (4점) / 수급 대상자 (2점) ②에 ‘수급 대상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최저 보장 연금형 (4점) / 최저 보장 연금 (4점)
- ② 형평성 (4점) / 대상자 (4점) / 수급 대상자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5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통과 의례, 방주네프, 엘리아데, 사회적 측면, 개인의 실존적 측면, 분리, 전이, 통합, 존재론적 변화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드 방주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례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과 의례를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를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들이 구성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집단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일상적인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교차한다는 것이다.

방주네프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분리 → 전이 → 통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분리 단계는 의례의 입문자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일상적 시·공간과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이다. 전이 단계에서는 모호성이나 혼동 또는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드러낸다. 방주네프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서 입문자는 사회에 통합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비로운 탄생: 입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통과 의례를 ‘격리 → 시련 → 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통과 의례에는 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다.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에서부터 그 증거가 발견되지만 소년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소년의 성인식 의례들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 놓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지만 소년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5.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구분	아르놀트 방주네프	미르체아 엘리아데
통과 의례의 단계	• 분리 → 전이 → 통합	• 격리 → 시련 → 재생
통과 의례에 대한 견해	• 통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함 • 통과 의례를 (①)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주목함 • 통과 의례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했지만, 통과 의례에서 발견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	•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비판함 • 통과 의례를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봄 • 통과 의례에 내재한 (②)을/를 주목한 결과 남성을 문화적 존재로,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해석함

②: _____ (4점)

-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글의 요지를 핵심적인 단어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어절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가) 교육과정 근거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00-115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18-134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07-108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할 때, 핵심적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통과 의례라는 개념을 일반론적으로 처음 정립한 아르놀트 방주네프의 견해를 1~3문단에 걸쳐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고 보완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관점과 견해를 4문단에서 제시했다. 방주네프는 일반성과 보편성이라는 원리와 구조를 탐구했는데, 이는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통과 의례를 바라본 것이다. 엘리아데는 방주네프가 일반성에 주목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과 의례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적 차이를 주목하여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며,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라고 하였다. 표에 만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사회적 / 사회 / 집단 / 집단적 ② 성적 차이 / 남녀 차이, 성별 차이 ①에 공동체 or 공동체적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②에 남녀 차이 또는 성별 차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사회적 / 사회 / 집단 / 집단적 (4점)
- ② 성적 차이 (4점) / 남녀 차이, 성별 차이 (2점)

- ①에 공동체 or 공동체적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 ②에 남녀 차이 또는 성별 차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콩고, 응킴바, 사춘기 의례, 전이, 존재론적 변화, 변화, 차별화된 위상, 모호성, 혼동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5번과 동일.

<문항>

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아프리카 콩고의 부족은 ‘응킴바’라는 사춘기 의례를 치른다. 응킴바에서 사춘기 소년들은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 격리되며 그동안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되는 사춘기 소년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 옷을 벗고 다니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물에 몸을 씻고 오두막을 태워 버린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행동한다. 부족 사람들은 응킴바를 거친 소년들이 주술적, 종교적으로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응킴바를 치르는 소년들은 살아 있으면서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남성이면서 비(非)남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호성과 혼동 속에서 지내는 셈이다. 방주네프에 따르면 이는 통과 의례 중 (①) 단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응킴바를 마친 후 특별한 자질을 지닌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것은 이 단계에서 (②)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지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한다.
-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문항에서 요구하는 어절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5	100-115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18-134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07-108		○

5. 문항 해설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콩고에서 발견되는 사춘기 소년들의 성년 의례인 ‘응킴바’에 관한 것이다. 응킴바를 치르는 소년들이 마을에서 분리되어 전이를 겪고 다시 공동체에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이’ 과정에서 겪는 경계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특히 옷을 벗고 다니거나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이 통합 후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전이 과정에서 존재론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전이 ② 존재론적 변화 / 차별화된 위상 / 경계의 상태 ②를 ‘변화’라고 쓴 경우 두 어절로 쓰라는 문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므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전이 (4점)
 ② 존재론적 변화 / 차별화된 위상 / 경계의 상태 (4점) / 변화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7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시의 표현, 감각적 언어, 공감각적 심상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가)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적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떨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파랑: 작은 물결과 큰 물결.

(나)

[앞부분 줄거리]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전셋집으로 이사한다. 가난을 인정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맡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산다.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그와 동거를 시작한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포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건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앓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건니? 다 말도 못 하게 지독한 [A]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어가다 골통을 벽에다 쿵쿵 부딪쳐 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①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혀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 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족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삼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곤 확실히 다르다. 전연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돈을 선뜻 쥐 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앓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들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보는 부자들에게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아버진 좋은 분이야. 요즈음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B]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한다.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자존심 강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즈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낄새를 타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썄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던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가염게시리,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멍멍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얼룩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날림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 등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흠쳐 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르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아흔아홉 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흠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짹짹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반자지: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를 바르는 종이. 흔히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박혀 있음.

<문항>

7. <보기>는 심상(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가)에서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행을 하나 찾아 그대로 쓰시오.

〈보 기〉

감각적 언어는 사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보거나 듣거나 만져 보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이처럼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심상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으로 세분된다. 또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 예컨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감각(청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다른 감각(시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8점)

3. 출제 의도

- 시를 읽고 전체적으로 감상하며 시의 형식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시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인 언어와 심상(이미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
- 다양한 심상 가운데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6]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 교육	2018	15-20, 76-80		○
고등학교 문학	김동환 외	천재 교과서	2018	98-102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310		

5. 문항 해설

시 작품에서 시인은 인상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감각적 표현과 언어를 사용한다. 즉 감정과 느낌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심상’(이미지)이다. 시의 감상은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기에, 심상을 이해하는 것은 시를 감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상은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연결되는데, 이 중 어떤 감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이라 한다. 제시된 발문에서는 이러한 공감각적 심상 가운데 ‘청각의 시각화’로 이루어진 시행을 찾아 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는 공감각적 심상이지만, ‘청각의 촉각화’라는 점에서 6점에 해당한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냈다’는 시각과 청각이 드러나지만, 각각의 대상에 각각 하나씩의 감각이 결부되어 있는 복합 감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행은 4점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 (8점) ‘청각의 촉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 (6점) 복합적 심상 (4점) 정답에 해당하는 시행의 전체를 쓰지 않는 경우 2점을 감점한다.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 8점
-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 6점
-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 4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8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시의 정서, 상호 텍스트성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7번과 동일.

<문항>

8. 윗글 (가)의 시적 화자가 대상(그녀)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쓰시오.

(8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다른 문학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핵심적 주제를 추론하고 다른 텍스트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관련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 교육	2018	15-20, 76-80		○
고등학교 문학	김동환 외	천재 교과서	2018	98-102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306-308, 310		

5. 문항 해설

제시된 시 지문은 ‘가재미’라는 독특한 비유를 활용하여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교감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작품은 죽음을 앞둔 채 힘 없이 누워 있는 그녀를 ‘엎드린 가재미’로 나타내고 있다. 시의 화자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교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 또한 ‘한 마리 가재미’로 나타냄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발문은 이러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제시된 또 다른 지문에서 찾는 것이다. 시적 화자의 감정은 타자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과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지문에서 제시된 ‘동정’, ‘애타심’ 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절실’은 감정의 구체적 양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상태만 드러낸다는 점에서 4점만 인정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동정 (8점) 애타심 (8점) 절실 (4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동정 : 8점
- 애타심 : 8점
- 절실 : 4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9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소설의 독해, 소설의 기법, 유추와 추리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7번과 동일.

<문항>

9. 윗글 (나)의 ㉠은 복선적 진술로 이후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그가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를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8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복선’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 교육	2018	15-20, 76-80		○
고등학교 문학	김동환 외	천재 교과서	2018	98-102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306-308, 310		

5. 문항 해설

소설에서 ‘복선’은 독자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독서의 몰입도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후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여 소설의 독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품 속에서 그(상훈)가 가난한 도금공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는 작품의 결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가난 체험이 단지 하나의 유희적, 일회적 경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나와는 다르게 부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등 물질적 부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진술이 제시된다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가난을 하나의 이벤트성 체험으로만 여긴다는 진술 역시, 소설의 문맥 상, 그가 부자라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이라는 진술만 제시되면, 신분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뿐이라는 점에서 4점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그(의 아버지 혹은 집안)의 물질적 부가 충분하다는 점이 진술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8점) ‘부자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의 주어를 ‘나’로 쓴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문항에서 ‘상훈(그)’의 행동의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주어가 생략된 경우 ‘상훈’을 주어로 간주한다. 답안이 15자를 넘어가면 내용이 맞다고 해도 2점을 감점한다.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아버지 혹은 그)가 부자(돈이 많다)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절실하지 않다), 가난 경험(체험), 절실하지 않다, 가난을 회롱해서, 3만원의 가치가 낮다 : 8점
- 가난을 ‘흠치다’와 같은 진술 : 4점
- 그는 대학생 : 4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10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소설의 주제와 시대, 문학과 사회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7번과 동일.

<문항>

10.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나)의 [B]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는 가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가 외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부가 또 다른 부를 낳는 부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부유층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 데 반해, 부를 창출할 자본과 수단을 갖지 못한 빈민층은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이러한 빈부 격차의 확대 및 심화 과정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부유층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①)마저 훼손당한 빈민층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었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①: _____ (8점)

3. 출제 의도

- 소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전제 아래 작품 속의 인물과 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2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8	15-20, 76-80		○
고등학교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8	98-102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306-308, 310		

5. 문항 해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 한국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보기>의 지문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만 물질적 부의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생활의 곤란함에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정신적 변화를 가져 온다. 즉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부유층의 비인간적 행태는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전락시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작품은 이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어떻게 못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존엄과 품위, 인간성을 몰락시키는지 보여 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반어적 제목으로 날카롭게 예각화시킨다. 따라서 10번 문항의 문제의 답은 ‘자존심’ 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삶’과 ‘생활’이라는 단어는 문맥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점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자존심’ 만 정답으로 인정함 ‘삶’, ‘생활’은 정신적 가치(존엄, 품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4점만 인정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자존심 : 8점
- 생활, 삶 : 4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심의, 투표, 공론 조사, 순응 비용, 합리적 무지, 제임스 피시킨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뉜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과 이라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 아니라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결정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 주어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심의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의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피시킨’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칭하였다. 피시킨은 이처럼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그는 사안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을 둔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모두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이에 대안으로서 피시킨은 공론 조사를 제안하였다. 공론 조사는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공론 조사에서는 맨 먼저 숙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그다음에는 숙의의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다음에는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 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만 한다고 비판한다. 또 목적에 따라 공론 조사의 결과가 취사선택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은 제거되고 의사 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항>

1.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두 어절로 쓰시오.

〈보 기〉

심의의 장점	• 정보의 취합 과정에서 정보의 양이 증대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함 •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임 • 법과 제도 정착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인 (①)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심의의 한계	• 의사 결정이 지연됨 •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함 • (②)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의 결과가 옳지 않을 수도 있음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16-13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36-146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42-143		○

5. 문항 해설

제시된 지문은 민주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방법인 심의의 장점과 한계, 그 대안으로 제안된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 조사의 과정과 이에 대한 반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지문의 1~3단락에 심의의 개념을 비롯해 심의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한 것이 <보기>이다. 글의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고, 수식과 안은 문장의 형태로 구성된 문장에서 핵심적인 용어를 찾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순응 비용 (4점) ② 합리적 무지 (4점) / 확증 편향 / 가용성 편향 / 무지 (2점) ②에 확증 편향 or 가용성 편향을 쓴 경우, 이들은 합리적 무지의 한 사례이므로 2점 인정 ‘무지’라고 쓴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순응 비용 (4점)
 ② 합리적 무지 (4점) / 확증 편향 (2점) / 가용성 편향 (2점) / 무지(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원전, 공론 조사, 취사선택, 투표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자연 계열(국어) 1번과 동일.

<문항>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1〉

△△시에서는 관내에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추가로 더 유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여론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원전을 추가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35%, 반대하는 입장이 54%였다. 이에 △△시는 공론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절차에 따른 공론 조사 결과 원전을 추가로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59.5%로, 반대 입장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한편, △△시가 추구하는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 원전 유지가 35.5%, 원전 확대가 9.7%로 시민들이 제출한 기존의 여론 조사와 변화가 없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원전을 추가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에서 △△시가 공론 조사를 수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그렇지만 원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자는 결과와 추가 유치를 찬성한다는 결과 중, 특정한 결과만을 선택한 것이기에 일부 주민은 이 지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시가 목적을 정해둔 상태에서 공론 조사의 결과를 (①)했다는 것이다. 추가 원전 유치라는 결정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숙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②)(으)로 원전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았겠다고 말하였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16-13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36-146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142-143		○

5. 문항 해설

지문의 5~6단락은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공론조사는 여론 조사를 수행하고, 그 뒤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동일한 조사를 수행해 그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도출된 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결과의 취사선택,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을 이유로 들어 투표의 효용을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했다. 앞선 문항이 심의의 장점과 한계를 물었다면, 이 문항은 공론 조사의 한계와 그 대안 묻고 핵심어를 찾아 쓰도록 한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취사선택 (4점) / 선택 (2점) ② 투표 (4점) / 1차 조사 (2점) ①에 선택을 쓴 경우는 2점 인정함. 문항에서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요구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는 지문에 없음. 취사선택에서 특정 부분만을 취한 것이기에 2점만 인정함. ②에 1차 조사를 쓴 경우, 문맥에 따라 답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단어로 쓰라는 지시사항을 어겼으므로 2점만 인정함.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취사선택 (4점) / 선택 (2점)
- ② 투표 (4점) / 1차 조사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에크모, 산화기, 펌프, 혈액 도관, 폐포, 가스 교환, 심장, 수축과 이완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c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 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이산화 탄소를 운반해 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 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에크모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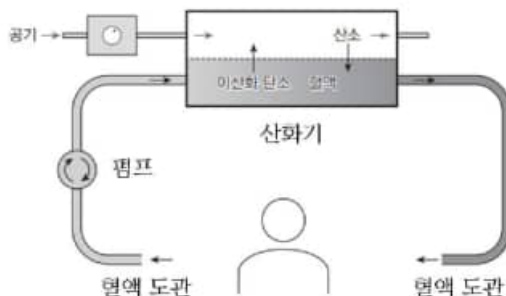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 넣게 된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로 넣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항>

3.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크모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두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겨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①)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받고 혈액 내부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산화기에서 이를 대신한다.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밀어 넣게 된다. 펌프는 심장이 (②)을/를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혈액 도관은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찾아내어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과학·기술 지문의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 파악 능력을 평가한다.
- 답안 작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어절, 음절 등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32-149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52-164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98-199		○

5. 문항 해설

제시된 지문은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인 에크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에크모는 심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단기간에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에 직접 연결하여 혈액을 외부로 빼낸 후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교환하여 다시 신체 내부로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에크모는 산화기, 펌프, 혈액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펌프는 회전하며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데 이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문항은 다소 복잡한 지문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에크모의 산화기, 펌프, 혈액 도관의 구조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크모가 대신하는 심폐 기능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핵심 키워드를 찾도록 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폐포 (4점) / 폐 (2점) / 심폐(2점) ② 수축과 이완 (4점) / 수축 이완 / 수축, 이완 / 이완과 수축 (2점) ①에 ‘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두 음절로 쓰라고 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심폐’는 폐를 포함하기에 유사 답안 2점으로 인정. ② 지문에 제시된 단어를 찾아서 쓰는 것으로 ‘수축과 이완’ 외에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완과 수축’ 등으로 쓴 답은 모두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폐포 (4점) / 폐 (2점) / 심폐(2점)
 ② 수축과 이완 (4점) / 수축 이완 / 수축, 이완 / 이완과 수축 (2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에크모, 산화기, 멤브레인, 분압차, VA 방식, VV 방식, 대동맥, 대정맥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자연 계열(국어) 3번과 동일.

<문항>

4. <보기>는 윗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은우: 에크모의 산화기 내부에 있는 (①)이/가 분압차를 이용해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키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였군.
 보라: VA 방식은 심장과 폐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활용하고,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쳐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거구나.
 중기: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쳐 (②)(으)로 넣어 준다는 점에서 VA 방식과 차이가 있네.
 지은: VA 방식과 VV 방식 모두 신체 외부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군.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 과학·기술 지문의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 파악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 교육	2015	132-149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52-164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한국교육방송 공사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98-199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을 읽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을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쓰는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제시된 <보기>는 에크모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에크모의 VA 방식과 VV 방식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은우는 에크모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산화기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분압차를 이용해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빈칸 ①에 들어갈 단어는 ‘멤브레인’이다. 에크모의 VV 방식과 VA 방식의 차이는 혈액 주입 위치가 다르다.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주지만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쳐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준다. 따라서 ②에 들어갈 단어는 ‘대정맥’이 되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멤브레인 (4점) / 막 (2점) ② 대정맥 (4점) ① 지문에 제시된 단어는 ‘멤브레인’이므로 철자를 잘못 쓴 경우에는 2점 인정함. 또한 ①에 ‘막’라고 쓴 경우, 막의 명칭인 ‘멤브레인’을 찾아서 쓰는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멤브레인 (4점) / 막 (2점)
- ② 대정맥 (4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5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소설의 주제, 상징적 표현, 추론과 적용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려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푹푹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썰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끼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었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허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름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문항>

5.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를 윗글에서 찾아 단어로 쓰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추론해서 쓰시오(②는 ‘구체적’과 같이 ‘-적’으로 끝나는 세 음절의 단어로 쓸 것).

〈보 기〉

「동백꽃」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①야속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가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이 이 소설의 재미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고 지주에게 땅을 빌렸다. 이때 소작료를 관리하고 소작농의 농사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름이었다. 마름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가진 자이고 그 마름에 의지하여 사는 소작인은 못 가진 자이다. 못 가진 자는 의식에서나 행동에서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세상 물정이다. 즉 어리숙하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나’의 행동의 이면에는 (②)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한다.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 _____ (4점) ②: _____ (4점)

3. 출제 의도

-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사건을 이해하고 그 표현 방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문학의 다양한 표현 방법 중 하나인 비유나 상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문학 속에 표현된 당대 현실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8	15-20, 76-80		○
고등학교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8	98-102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한국교육 방송공사 편집부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5	283-284		

5. 문항 해설

<동백꽃>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와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감자를 주지만, 거절을 당한다. 이에 야속함을 느낀 점순은 닭 싸움을 통해 이를 표현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나에게 대한 관심과 호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호감을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가 못 느끼는 것이 이 작품의 재미이지만, 나의 행동은 단지 무지함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즉 점순이와 나는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의 소극성은 못 가진 자의 전형적인 자기방어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야속함을 보여 주는 소재는 ‘수탉’, ‘닭’, ‘쌈’, ‘눈물’ 만 인정된다.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결정지고, 행동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마름과 소작농의 차이에 의해 발생함으로 계층적, 계급적, 신분적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금전적, 지위적, 빈부적, 재정적, 현실적, 권력적, 자본적, 재산적, 배경적, 대조적, 생계적 등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2점으로 인정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수탉, 닭, 씹, 눈물 (4점) ‘닭 씹’, ‘닭씹’은 지시 사항 위반으로 2점 감점한다. 계급적, 계층적, 신분적 (4점)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2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① 수탉, 닭, 씹, 눈물 (4점) / 닭 씹, 닭씹 (2점)

② 계급적, 계층적, 신분적 (4점) /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금전적, 지위적, 빈부적, 재정적, 현실적, 권력적, 자본적, 재산적, 배경적, 대조적, 생계적 (2점)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 수학]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1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로그함수
예상 소요 시간	3분	

2. 문항 및 자료

11. 방정식 $\log_3(5x+3)=2+\log_3(x-1)$ 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1-1.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1-2.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53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외	비상	2018	51

5. 문항 해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 다루어진 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낸 뒤,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하여 $5x+3>0$, $x-1>0$ 따라서 $x>1$ ……㉠ $\log_3(5x+3)=2+\log_3(x-1)$ 에서 $\log_3(5x+3)-\log_3(x-1)=2$ $\log_3 \frac{5x+3}{x-1}=2$ $\frac{5x+3}{x-1}=3^2$	4
	$5x+3=9(x-1)$ $x=3$ (위의 값은 진수 조건 ㉠을 만족시킨다.)	4

[별해]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og_x(5x+3)=2+\log_3(x-1)=\log_3 3^2(x-1)$ $5x+3=9(x-1)=9x-9$	4
	$4x=12$ $\therefore x=3$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하여 $5x+3>0$, $x-1>0$ 따라서 $x>1$ ……㉠

$\log_3(5x+3)=2+\log_3(x-1)$ 에서

$$\log_3(5x+3)-\log_3(x-1)=2$$

$$\log_3 \frac{5x+3}{x-1}=2$$

$$\frac{5x+3}{x-1}=3^2$$

$$5x+3=9(x-1)$$

$$x=3$$

(위의 값은 진수 조건 ㉠을 만족시킨다.)

[별해]

$$\log_x(5x+3)=2+\log_3(x-1)=\log_3 3^2(x-1)$$

$$5x+3=9(x-1)=9x-9$$

$$4x=12$$

$$\therefore x=3$$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등차수열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2. 수열 $\{a_n\}$ 은 첫째항이 10이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 = a_n - \frac{2}{3}$ 를 만족시킨다.
 $a_n > 0$ 이 되는 자연수 n 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1) 수열 [I]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 I 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125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외	비상	2018	120

5. 문항 해설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되며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기초 개념이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수열’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a_1 = 10$ 이고 공차 $d = a_{n+1} - a_n = -\frac{2}{3}$ 이므로, 수열의 일반항 $a_n = 10 - \frac{2}{3}(n-1) = -\frac{2}{3}n + \frac{32}{3}$	4
	따라서 $-\frac{2}{3}n + \frac{32}{3} > 0$ 에서 $2n < 32$ 즉 $n < 16$ 그러므로 n 의 최댓값은 15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_1 = 10$ 이고 공차 $d = a_{n+1} - a_n = -\frac{2}{3}$ 이므로,

수열의 일반항 $a_n = 10 - \frac{2}{3}(n-1) = -\frac{2}{3}n + \frac{32}{3}$

따라서 $-\frac{2}{3}n + \frac{32}{3} > 0$ 에서 $2n < 32$ 즉 $n < 16$

그러므로 n 의 최댓값은 15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3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극대, 극소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제시문

함수 $f(x) = -x^3 + ax^2 + 6x - 3$ 이 $x = 2$ 에서 극대일 때,
함수 $f(x)$ 의 극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3. 출제 의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1.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수학 II] - (1) 미분 -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II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86-89
	고등학교 수학 II	김원경 외	비상	2022	82-85

5. 문항 해설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함수의 적분에 대한 기초가 되고 최대, 최소 문제를 포함하여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f'(x) = -3x^2 + 2ax + 6$ 이고 $x = 2$ 에서 극대이므로 $f'(2) = -12 + 4a + 6 = 0$ 이므로 $a = \frac{3}{2}$	4
	$f'(x) = -3x^2 + 3x + 6 = 0$ 을 풀면 $3(x-2)(x+1) = 0$ 따라서 함수 $f(x)$ 는 $x = -1$ 에서 극솟값을 가진다. $f(-1) = 1 + \frac{3}{2} - 6 - 3 = -\frac{13}{2}$ 그러므로 구하는 극솟값은 $-\frac{13}{2}$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f'(x) = -3x^2 + 2ax + 6 \text{ 이고}$$

$$x = 2 \text{에서 극대이므로 } f'(2) = -12 + 4a + 6 = 0 \text{ 이므로 } a = \frac{3}{2}$$

$$f'(x) = -3x^2 + 3x + 6 = 0 \text{을 풀면 } 3(x-2)(x+1) = 0$$

따라서 함수 $f(x)$ 는 $x = -1$ 에서 극솟값을 가진다.

$$f(-1) = 1 + \frac{3}{2} - 6 - 3 = -\frac{13}{2}$$

$$\text{그러므로 구하는 극솟값은 } -\frac{13}{2}$$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4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연속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4. 함수 $f(x) = \begin{cases} x^2 - 3 & (x < 3) \\ x + a & (x \geq 3) \end{cases}$ 에 대하여 함수 $\{f(x) - 1\}^2$ 이 $x = 3$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구간에 따른 함수의 합성 함수를 구하고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구간에 따른 함수의 합성 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구간에 따른 함수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② 함수의 연속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12수학II01-04]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33~34
	고등학교 수학II	김원경 외	비상	2022	33~34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26

5. 문항 해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고, 미적분 개념의 기초가 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Ⅱ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구간에 따른 함수의 합성 함수를 구하고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g(x) = \{f(x) - 1\}^2$ 라 하자. 함수 $g(x)$ 가 $x = 3$ 에서 연속이 되려면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g(x) = g(3)$ 이어야 한다.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x^2 - 3 - 1)^2 = (9 - 4)^2 = 25$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x + a - 1)^2 = (3 + a - 1)^2 = (2 + a)^2$ $g(3) = (2 + a)^2$ 이므로	4
	$25 = (2 + a)^2$ (또는 $a^2 + 4a - 21 = 0$) 따라서 실수 $a = 3$ 또는 $a = -7$ 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g(x) = \{f(x) - 1\}^2$ 라 하자. 함수 $g(x)$ 가 $x = 3$ 에서 연속이 되려면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g(x) = g(3)$ 이어야 한다.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x^2 - 3 - 1)^2 = (9 - 4)^2 = 25$

$\lim_{x \rightarrow 3+} g(x) = \lim_{x \rightarrow 3+} (x + a - 1)^2 = (3 + a - 1)^2 = (2 + a)^2$

$g(3) = (2 + a)^2$ 이므로

$25 = (2 + a)^2$ (또는 $a^2 + 4a - 21 = 0$)

따라서 실수 $a = 3$ 또는 $a = -7$ 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5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자료

15. $0 \leq x \leq 6$ 에서 함수 $y = a \sin \frac{\pi(x-3)}{3}$ 의 그래프와 두 직선 $|y| = \frac{3}{2}$ 의 그래프는 네 점에서 만난다. 네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6일 때 양수 a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사인함수의 주기와 최댓값,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주어진 구간에서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2) 삼각함수 I] 삼각함수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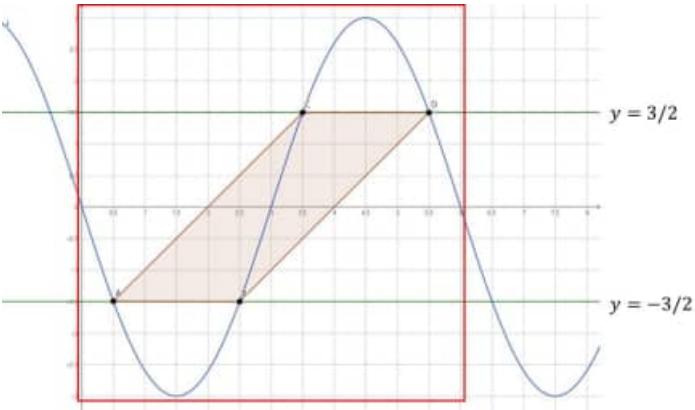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85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김원경 외	비상	2018	78

5.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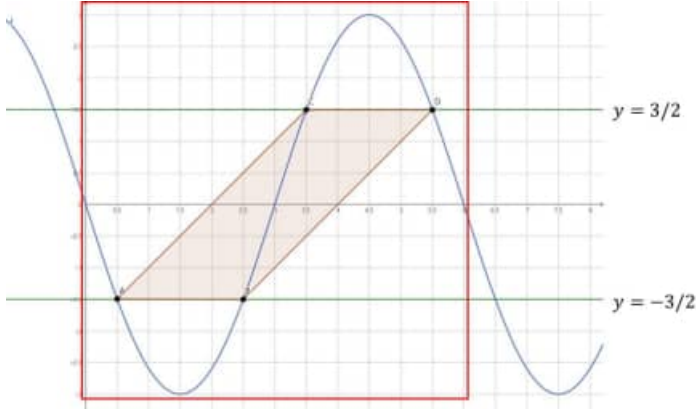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로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삼각함수’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y = a \sin \frac{\pi(x-3)}{3}$는 주기가 6인 함수 $y = a \sin \frac{\pi x}{3}$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만나는 네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A, B, C, D라 하면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ABDC는 평행사변형이다.	4
	점 C의 좌표를 $(3+k, \frac{3}{2})$라고 하면, 점 D의 좌표는 $(6-k, \frac{3}{2})$이다. ($k > 0$) 점 C에서 $y = a \sin \frac{\pi(x-3)}{3}$와 직선 $y = \frac{3}{2}$이 만나므로, $a \sin \frac{\pi k}{3} = \frac{3}{2} \dots\dots \textcircled{1}$ 평행사변형의 밑변 = $\overline{CD}$의 길이 = $\overline{AB}$의 길이 = $3-2k$ 평행사변형 ABDC의 넓이는 $(3-2k) \cdot 3 = 6$이므로 $k = \frac{1}{2}$ ①에 대입하면 $a = 3$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y = a \sin \frac{\pi(x-3)}{3}$ 는 주기가 6인 함수 $y = a \sin \frac{\pi x}{3}$ 을 x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만나는 네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A, B, C, D라 하면,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ABDC는 평행사변형이다.

점 C의 좌표를 $(3+k, \frac{3}{2})$ 라고 하면, 점 D의 좌표는 $(6-k, \frac{3}{2})$ 이다. ($k > 0$)

점 C에서 $y = a \sin \frac{\pi(x-3)}{3}$ 와 직선 $y = \frac{3}{2}$ 이 만나므로, $a \sin \frac{\pi k}{3} = \frac{3}{2} \dots\dots \textcircled{1}$

평행사변형의 밑변 = $\overline{CD}$ 의 길이 = $\overline{AB}$ 의 길이 = $3-2k$

평행사변형 ABDC의 넓이는 $(3-2k) \cdot 3 = 6$ 이므로 $k = \frac{1}{2}$

①에 대입하면 $a = 3$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6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지수법칙
예상 소요 시간	3분	

2. 문항 및 자료

6. 부등식 $\left(\frac{1}{9}\right)^x < 3^{10-4x}$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낸 뒤,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외	비상	2018	49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51

5. 문항 해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낸 뒤,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eft(\frac{1}{9}\right)^x < 3^{10-4x}$ 에서 $\left(\frac{1}{9}\right)^x = 3^{-2x}$ 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3^{-2x} < 3^{10-4x}$	4
	지수함수의 성질에 따라 $-2x < 10-4x$ 이므로 $x < 5$ 자연수 $x=1, 2, 3, 4$ 그러므로 개수는 4.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left(\frac{1}{9}\right)^x = 3^{-2x} \text{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 3^{-2x} < 3^{10-4x}$$

지수함수의 성질에 따라 $-2x < 10-4x$ 이므로 $x < 5$

자연수 $x=1, 2, 3, 4$ 그러므로 개수는 4.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7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부정적분과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7.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0^x f(t) dt = 2x^3 - 3x^2 \int_0^1 f(t) dt$$

를 만족시킬 때, $f(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정적분의 뜻을 알고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정적분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3) 적분 - ㉔ 정적분 [12수학II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II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121-125
	고등학교 수학II	김원경 외	비상	2022	120-121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0

5. 문항 해설

미분과 역관계에 있는 적분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미분과 함께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Ⅱ의 ‘적분’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정적분의 뜻을 알고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int_0^x f(t) dt = 2x^3 - 3x^2 \int_0^1 f(t) dt \dots\dots\textcircled{7}$ $\int_0^1 f(t) dt = k \text{ (} k \text{ 는 실수)라 하자.}$ $\textcircled{7} \text{의 양변을 } x \text{에 대하여 미분하면 } f(x) = 6x^2 - 6kx$	4
	$\int_0^1 (6t^2 - 6kt) dt = [2t^3 - 3kt^2]_0^1 = 2 - 3k$ 즉 $k = 2 - 3k$ 이므로 $k = \frac{1}{2}$ 이다. 따라서 $f(x) = 6x^2 - 3x$ 이므로 $f(1) = 3$이다.	4

[별해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int_0^x f(t) dt = k \text{라 하자.}$ $\int_0^x f(t) dt = 2x^3 - 3kx^2 \text{이므로 } x = 1 \text{을 대입하면,}$ $k = 2 - 3k \text{ 이다.}$ 따라서, $k = \frac{1}{2}$이다.	4
	$\int_0^x f(t) dt = 2x^3 - 3kx^2 \text{이므로 } k = \frac{1}{2} \text{를 대입하면,}$ $\int_0^x f(t) dt = 2x^3 - \frac{3}{2}x^2 \text{이다.}$ 양변을 미분하면, $f(x) = 6x^2 - 3x$ $\therefore f(1) = 3$	4

[별해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x=1$ 을 대입하면 $\int_0^1 f(t)dt = 2 - 3 \int_0^1 f(t)dt$ $\therefore \int_0^1 f(t)dt = \frac{1}{2}$ $\therefore \int_0^x f(t)dt = 2x^3 - \frac{3}{2}x^2$	4
	양변을 미분하면, $f(x) = 6x^2 - 3x$ 따라서, $f(1) = 6 - 3 = 3$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int_0^x f(t)dt = 2x^3 - 3x^2 \int_0^1 f(t)dt \dots\dots\textcircled{7}$$

$$\int_0^1 f(t)dt = k \quad (k \text{ 는 실수}) \text{라 하자.}$$

⑦의 양변을 x 에 대하여 미분하면 $f(x) = 6x^2 - 6kx$

$$\int_0^1 (6t^2 - 6kt)dt = [2t^3 - 3kt^2]_0^1 = 2 - 3k$$

$$\text{즉 } k = 2 - 3k \text{ 이므로 } k = \frac{1}{2} \text{ 이다.}$$

따라서 $f(x) = 6x^2 - 3x$ 이므로 $f(1) = 3$ 이다.

[별해1]

$$\int_0^x f(t)dt = k \text{라 하자.}$$

$$\int_0^x f(t)dt = 2x^3 - 3kx^2 \text{이므로 } x=1 \text{을 대입하면,}$$

$$k = 2 - 3k \text{ 이다.}$$

$$\text{따라서, } k = \frac{1}{2} \text{ 이다.}$$

$$\int_0^x f(t)dt = 2x^3 - 3kx^2 \text{이므로 } k = \frac{1}{2} \text{를 대입하면,}$$

$$\int_0^x f(t)dt = 2x^3 - \frac{3}{2}x^2 \text{이다.}$$

양변을 미분하면, $f(x) = 6x^2 - 3x$

$$\therefore f(1) = 3$$

[별해2]

$$x=1 \text{을 대입하면 } \int_0^1 f(t)dt = 2 - 3 \int_0^1 f(t)dt$$

$$\therefore \int_0^1 f(t) dt = \frac{1}{2}$$

$$\therefore \int_0^x f(t) dt = 2x^3 - \frac{3}{2}x^2$$

양변을 미분하면, $f(x) = 6x^2 - 3x$

따라서, $f(1) = 6 - 3 = 3$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8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지수, 로그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제시문

두 자연수 m, n 의 순서쌍 (m, n) 이

$$\log_{2n} \sqrt{m} + 2\log_{2n} m = \frac{15}{4}$$

를 만족시킬 때, $m+n$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1-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로그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수학 I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I] 지수와 로그 [12수학 I 01-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27-32
	고등학교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	2025	23-28

5. 문항 해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og_{2n} \sqrt{m} + 2\log_{2n} m = \frac{5}{2} \log_{2n} m = \frac{15}{4}$ 이므로 $\log_{2n} m = \frac{3}{2}$ 에서 $m^2 = (2n)^3$ (또는 $m = (2n)^{\frac{3}{2}}$)이다.	4
	좌변이 제곱수이므로 $n = 2p$ (p 는 자연수) 꼴이어야 한다. $p = 1$ 이면 $(2n)^3 = (2 \times 2)^3 = (2^3)^2$ 이다. 그러므로 $n = 2, m = 8$ 일 때, $m + n$ 의 최솟값은 10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log_{2n} \sqrt{m} + 2\log_{2n} m = \frac{5}{2} \log_{2n} m = \frac{15}{4} \text{ 이므로}$$

$$\log_{2n} m = \frac{3}{2} \text{ 에서 } m^2 = (2n)^3 \text{ (또는 } m = (2n)^{\frac{3}{2}} \text{)이다.}$$

좌변이 제곱수이므로 $n = 2p$ (p 는 자연수) 꼴이어야 한다.

$$p = 1 \text{ 이면 } (2n)^3 = (2 \times 2)^3 = (2^3)^2 \text{ 이다.}$$

그러므로 $n = 2, m = 8$ 일 때, $m + n$ 의 최솟값은 10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9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등차수열의 합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9. 수열 $\{a_n\}$ 이 $n \geq 2$ 인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sum_{k=1}^{n-1} (a_k - a_{k+1}) = \sum_{k=1}^{n-1} \frac{k}{n-1}$$

를 만족시킨다. $a_1 = 25$ 일 때, a_{40}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여,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본 문제는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3) 수열 - ㉔ 수열의 합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127~129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외	비상	2025	124~126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90

5. 문항 해설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되며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기초 개념이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수열’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여,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sum_{k=1}^{n-1} (a_k - a_{k+1}) = (a_1 - a_2) + (a_2 - a_3) + \dots + (a_{n-1} - a_n) = a_1 - a_n \text{ 이고,}$ $\sum_{k=1}^{n-1} \frac{k}{n-1} = \frac{1}{n-1} \left\{ \frac{(n-1)n}{2} \right\} = \frac{n}{2} \text{ 이므로}$	4
	$\sum_{k=1}^{n-1} (a_k - a_{k+1}) = \sum_{k=1}^{n-1} \frac{k}{n-1} \text{ 에서 } a_1 - a_n = \frac{n}{2} \dots\dots\textcircled{1}$ $\textcircled{1}\text{에서 } a_n = a_1 - \frac{n}{2} \text{ 이므로 } a_{40} = 25 - \frac{40}{2} = 5 \text{ 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sum_{k=1}^{n-1} (a_k - a_{k+1}) = (a_1 - a_2) + (a_2 - a_3) + \dots + (a_{n-1} - a_n) = a_1 - a_n \text{ 이고,}$$

$$\sum_{k=1}^{n-1} \frac{k}{n-1} = \frac{1}{n-1} \left\{ \frac{(n-1)n}{2} \right\} = \frac{n}{2} \text{ 이므로}$$

$$\sum_{k=1}^{n-1} (a_k - a_{k+1}) = \sum_{k=1}^{n-1} \frac{k}{n-1} \text{ 에서 } a_1 - a_n = \frac{n}{2} \dots\dots\textcircled{1}$$

$$\textcircled{1}\text{에서 } a_n = a_1 - \frac{n}{2} \text{ 이므로 } a_{40} = 25 - \frac{40}{2} = 5 \text{ 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0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등비수열과 수열의 합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0.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_n\}$ 이 있다. 수열 $\{a_n^2\}$ 의 첫째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할 때, $S_n - S_{n-2} = 32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3) 수열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 I 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132-136
	고등학교 수학I	김원경 외	비상	2025	131-132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5

5. 문항 해설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되며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기초 개념이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 I의 ‘수열’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등비수열 $\{a_n\}$의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이므로 $a_n = 4 \times 2^{n-1} = 2^{n+1}$ $a_n^2 = (2^{n+1})^2 = 2^{2(n-1)+4} = 2^4 \times 4^{n-1}$ 따라서 수열 $\{a_n^2\}$은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므로 수열 $\{a_n^2\}$의 첫째항부터 n항까지의 합 $S_n = \frac{16(4^n - 1)}{4 - 1}$ 이고	4
	$S_{n-2} = \frac{16(4^{n-2} - 1)}{4 - 1} \text{ 이다.}$ $S_n - S_{n-2} = \frac{16}{3} \{(4^n - 1) - (4^{n-2} - 1)\}$ $= \frac{16}{3} \times 4^{n-2} \times (16 - 1) = 80 \times 4^{n-2}$ 따라서 $S_n - S_{n-2} = 320 = 80 \times 4^{n-2}$ 에서 $4 = 4^{n-2}$이 되는 $n = 3$이다.	4

[별해]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등비수열 $\{a_n\}$의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이므로 $a_n = 4 \times 2^{n-1} = 2^{n+1}$ $a_n^2 = (2^{n+1})^2 = 2^{2(n-1)+4} = 2^4 \times 4^{n-1}$ $S_n - S_{n-2} = a_n^2 + a_{n-1}^2 = 16 \cdot 4^{n-1} + 16 \cdot 4^{n-2} = 16 \cdot 4^{n-2} \cdot 5$	4
	$16 \cdot 4^{n-2} \cdot 5 = 320$ $4^{n-2} = 4$ $\therefore n = 3$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등비수열 $\{a_n\}$ 의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이므로 $a_n = 4 \times 2^{n-1} = 2^{n+1}$

$$a_n^2 = (2^{n+1})^2 = 2^{2(n-1)+4} = 2^4 \times 4^{n-1}$$

따라서 수열 $\{a_n^2\}$ 은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므로 수열 $\{a_n^2\}$ 의 첫째항부터 n 항까지의 합

$$S_n = \frac{16(4^n - 1)}{4 - 1} \text{ 이고 } S_{n-2} = \frac{16(4^{n-2} - 1)}{4 - 1} \text{ 이다.}$$

$$S_n - S_{n-2} = \frac{16}{3} \{(4^n - 1) - (4^{n-2} - 1)\} = \frac{16}{3} \times 4^{n-2} \times (16 - 1) = 80 \times 4^{n-2}$$

따라서 $S_n - S_{n-2} = 320 = 80 \times 4^{n-2}$ 에서

$$4 = 4^{n-2} \text{이 되는 } n = 3 \text{이다.}$$

[별해]

등비수열 $\{a_n\}$ 의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이므로 $a_n = 4 \times 2^{n-1} = 2^{n+1}$

$$a_n^2 = (2^{n+1})^2 = 2^{2(n+1)} = 2^4 \times 4^{n-1}$$

$$S_n - S_{n-2} = a_n^2 + a_{n-1}^2 = 16 \cdot 4^{n-1} + 16 \cdot 4^{n-2} = 16 \cdot 4^{n-2} \cdot 5$$

$$16 \cdot 4^{n-2} \cdot 5 = 320$$

$$4^{n-2} = 4$$

$$\therefore n = 3$$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1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가능과 연속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1. 함수 $f(x) = \begin{cases} x^3 + x^2 - x + 3 & (x < 1) \\ ax^2 + b & (x \geq 1) \end{cases}$ 가 $x=1$ 에서 미분가능할 때, $a-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는 상수이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2) 미분 - ㉠ 미분계수 [12수학II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57~58
	고등학교 수학II	김원경 외	비상	2022	57~58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31

5. 문항 해설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함수의 적분에 대한 기초가 되고 최대, 최소 문제를 포함하여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II의 ‘미분’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함수 $f(x)$가 $x=1$에서 미분가능하므로 $x=1$에서 연속이다. 즉,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x) = f(1)$ $\lim_{x \rightarrow 1-} f(x) = x^3 + x^2 - x + 3 = 1 + 1 - 1 + 3 = 4$ $\lim_{x \rightarrow 1+} f(x) = a + b$ $f(1) = a + b$ 이므로 $a + b = 4 \dots\dots \textcircled{7}$	4
	함수 $f(x)$가 $x=1$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을 만족한다.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x^3 + x^2 - x + 5 - (a + b)}{x - 1} = 4$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ax^2 + b - (a + b)}{x - 1} = 2a$ $4 = 2a$ 이어야 하므로 $a = 2$ 이고 $\textcircled{7}$에 의해 $b = 2$ 이다. 따라서 $a - b = 0$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함수 $f(x)$ 가 $x=1$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x=1$ 에서 연속이다.

즉,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x) = f(1)$

$\lim_{x \rightarrow 1-} f(x) = x^3 + x^2 - x + 3 = 1 + 1 - 1 + 3 = 4$

$\lim_{x \rightarrow 1+} f(x) = a + b$

$f(1) = a + b$ 이므로 $a + b = 4 \dots\dots \textcircled{7}$

함수 $f(x)$ 가 $x=1$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을 만족한다.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x^3 + x^2 - x + 5 - (a + b)}{x - 1} = 4$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ax^2 + b - (a + b)}{x - 1} = 2a$

$4 = 2a$ 이어야 하므로 $a = 2$ 이고 $\textcircled{7}$ 에 의해 $b = 2$ 이다.

따라서 $a - b = 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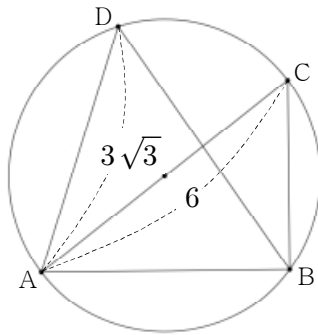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제시문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ABC, ABD가 있다.



다음은 $\overline{AD} = 3\sqrt{3}$ 이고 $\sin(\angle CAB) = \frac{\sqrt{3}}{3}$ 일 때, $\overline{BD}$ 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선분 AC가 원의 지름이므로 삼각형 ABC는 $\angle B = \frac{\pi}{2}$ 인 직각삼각형이다.

$\sin(\angle CAB) = \frac{\sqrt{3}}{3}$ 이므로 $\overline{BC} = \boxed{\text{(가)}}$ 이고 $\overline{AB} = \boxed{\text{(나)}}$ 이다.

$\angle ADB = \angle ACB$ 이므로 $\cos(\angle ADB) = \boxed{\text{(다)}}$ 이다.

$\overline{BD} = x$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boxed{\text{(라)}}x + 3 = 0$ 을 얻는다.

그러므로 $x = \dots\dots$. (이하 생략)

3. 출제 의도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1. 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수학 I] - (2) 삼각함수 - Ⅱ 삼각함수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98-103
	고등학교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	2025	95-101

5. 문항 해설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로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선분 AC가 원의 지름이므로 삼각형 ABC는 $\angle B = \frac{\pi}{2}$ 인 직각삼각형이다. $\sin(\angle CAB) = \frac{\sqrt{3}}{3}$ 이므로 $\overline{BC} = 2\sqrt{3}$ 이고 $\overline{AB} = 2\sqrt{6}$ 이다. $\angle ADB = \angle ACB$ 이므로 $\cos(\angle ADB) = \frac{\sqrt{3}}{3}$ 이다. (가) $2\sqrt{3}$, (나) $2\sqrt{6}$, (다) $\frac{\sqrt{3}}{3}$	4
	$\overline{BD} = x$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overline{AB}^2 = \overline{AD}^2 + \overline{BD}^2 - 2\overline{AD} \times \overline{BD} \times \cos(\angle ADB)$ 이므로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6x + 3 = 0$을 얻는다. 그러므로 $x = \dots\dots$. (이하 생략) (라) -6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선분 AC가 원의 지름이므로 삼각형 ABC는 $\angle B = \frac{\pi}{2}$ 인 직각삼각형이다.

$\sin(\angle CAB) = \frac{\sqrt{3}}{3}$ 이므로 $\overline{BC} = 2\sqrt{3}$ 이고 $\overline{AB} = 2\sqrt{6}$ 이다.

$\angle ADB = \angle ACB$ 이므로 $\cos(\angle ADB) = \frac{\sqrt{3}}{3}$ 이다.

(가) $2\sqrt{3}$, (나) $2\sqrt{6}$, (다) $\frac{\sqrt{3}}{3}$

$\overline{BD} = x$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overline{AB}^2 = \overline{AD}^2 + \overline{BD}^2 - 2\overline{AD} \times \overline{BD} \times \cos(\angle ADB)$ 이므로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6x + 3 = 0$ 을 얻는다.

그러므로 $x = \dots\dots$. (이하 생략)

(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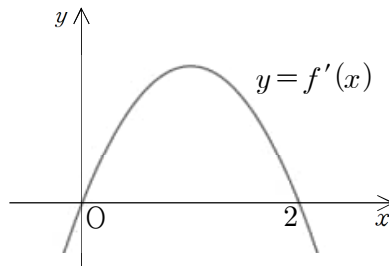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3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극대와 극소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3.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y=f'(x)$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0)=f'(2)=0$ 이다.



함수 $f(x)$ 의 극솟값이 -1 이고 극댓값이 3 일 때, $f(-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1-1. 삼차 함수의 미분을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I] - (2) 미분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88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김원경 외	비상	2018	85

5. 문항 해설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함수의 적분에 대한 기초가 되고 최대, 최소 문제를 포함하여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Ⅱ의 ‘미분’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이차함수 $y=f'(x)$ 가 $f'(0)=f'(2)=0$ 이고 위로 볼록하므로 $f'(x)=ax(x-2)=ax^2-2ax$ ($a<0$) 그러므로 $f(x)=\frac{1}{3}ax^3-ax^2+C$ (C 는 상수)	4
	따라서 $x=0$ 일 때 극소이고 극솟값은 $f(0)=C=-1$ $x=2$ 일 때 극대이고 극댓값은 $f(2)=\frac{8}{3}a-4a-1=3$ 즉, $a=-3$ 따라서 $f(x)=-x^3+3x^2-1$ 이고 $f(-1)=3$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이차함수 $y=f'(x)$ 가 $f'(0)=f'(2)=0$ 이고 위로 볼록하므로

$$f'(x)=ax(x-2)=ax^2-2ax \quad (a<0)$$

$$\text{그러므로 } f(x)=\frac{1}{3}ax^3-ax^2+C \quad (C \text{는 상수})$$

따라서 $x=0$ 일 때 극소이고 극솟값은 $f(0)=C=-1$

$$x=2 \text{일 때 극대이고 극댓값은 } f(2)=\frac{8}{3}a-4a-1=3$$

즉, $a=-3$

$$\text{따라서 } f(x)=-x^3+3x^2-1 \text{이고 } f(-1)=3$$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4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의 그래프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제시문

$0 \leq x \leq 2\pi$ 에서 방정식 $\sin x = \cos 4x$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1.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수학 II - (1) 삼각함수 - ㉠ 삼각함수 [12수학 I 02-01]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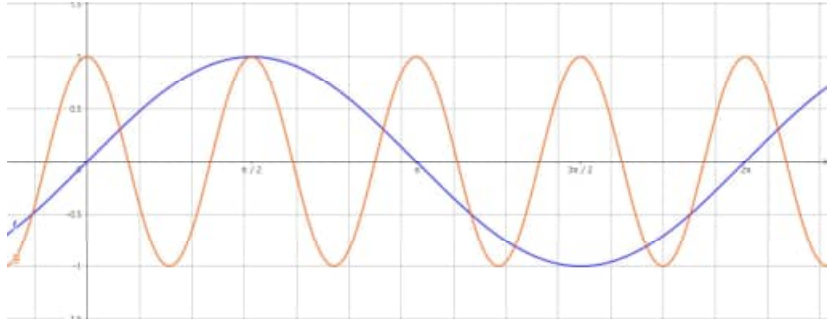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83-87
	고등학교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	2025	76-82

5.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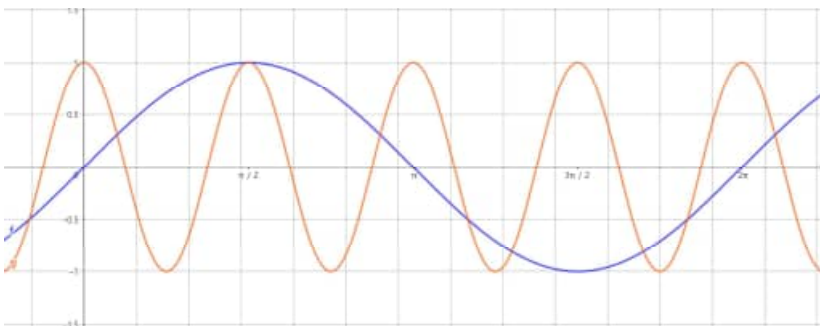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로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두 함수 $y = \sin x$ 와 $y = \cos 4x$ 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4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순서대로 $x_1 < x_2 < \dots < x_7$ 라 하면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frac{x_1 + x_3}{2} = \frac{\pi}{2}, \quad x_2 = \frac{\pi}{2}, \quad \frac{x_4 + x_7}{2} = \frac{3\pi}{2}, \quad \frac{x_5 + x_6}{2} = \frac{3\pi}{2}$ 이다. $x_1 + x_2 + \dots + x_7 = \frac{15\pi}{2}$ 이므로, 모든 근의 합은 $\frac{15\pi}{2}$ 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두 함수 $y = \sin x$ 와 $y = \cos 4x$ 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순서대로 $x_1 < x_2 < \dots < x_7$ 라 하면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frac{x_1 + x_3}{2} = \frac{\pi}{2}, \quad x_2 = \frac{\pi}{2}, \quad \frac{x_4 + x_7}{2} = \frac{3\pi}{2}, \quad \frac{x_5 + x_6}{2} = \frac{3\pi}{2} \text{ 이다.}$$

$$x_1 + x_2 + \dots + x_7 = \frac{15\pi}{2} \text{ 이므로,}$$

$$\text{모든 근의 합은 } \frac{15\pi}{2} \text{ 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5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연속, 미분가능성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제시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2 - (x^2 + 1)f(x) + x^2 = 0$
 (나) 함수 $f(x)$ 는 $x = -1$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다) 함수 $f(x)$ 의 최솟값은 0이다.

$f(-2) + f'(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 평가한다.

- 1-1. 함수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1-2.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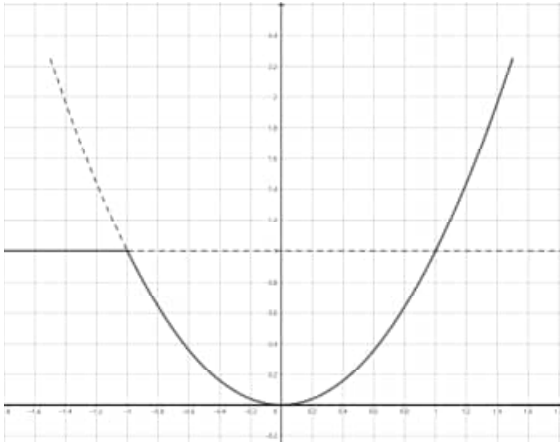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기준
	[수학 II] - (2) 미분 - ㉠ 미분계수, ㉡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II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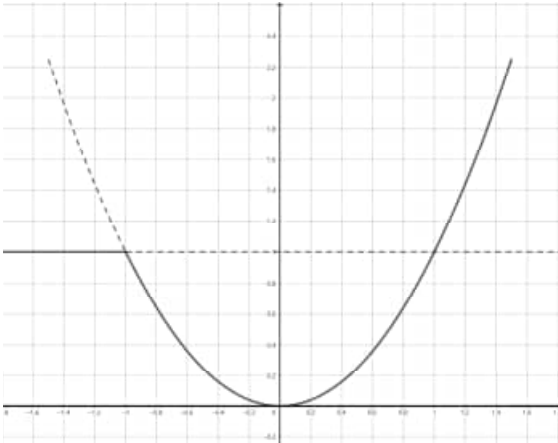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5	91-97
	고등학교 수학 II	김원경 외	비상	2022	86-89

5. 문항 해설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함수의 적분에 대한 기초가 되고 최대, 최소 문제를 포함하여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f(x)\}^2 - (x^2 + 1)f(x) + x^2 = 0$ 이므로 $(f(x) - x^2)(f(x) - 1) = 0$ 이다. 따라서 (주어진 x 에 대하여) $f(x) = x^2$ 또는 $f(x) = 1$ 을 만족한다.	4
	그러므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f(-2) = 1$ 이고 $f'(x) = 2x, f'(2) = 4$ 이다. 따라서 $f(-2) + f'(2) = 5$ 이다.	4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f(x)\}^2 - (x^2 + 1)f(x) + x^2 = 0$ 이므로 $(f(x) - x^2)(f(x) - 1) = 0$ 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f(-2) = 1$ 이고 $f'(x) = 2x, f'(2) = 4$ 이다. 따라서 $f(-2) + f'(2) = 5$ 이다.		

4.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설문지 양식

2026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설문지

[설문 개요]

- 설문대상: 면접·논술고사 대상자(본등록 대상자 기준)
- 설문방식: 온라인(네이버폼)
- 설문기간: 2026.01.02.(금) ~ 16(금)
- 설문안내: 개별문자(URL 전송), 홈페이지 공지(배너) 등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
**신입생
설문 조사**
2026. 1. 2 ~ 1. 16

수시모집 논술/면접고사 난이도 점검 및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6학년도 논술/면접고사 응시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면접고사 응시자(등록자 기준)

참여방법 아래 고사유형별 링크 접속 후 참여

- (논술) <https://naver.me/GCgsVLFb>
- (면접) <https://naver.me/xTsuiOlw>

참여혜택 참여자 전원 소정의 상품 지급(입학 후 방문 수령)

문의사항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
031-379-0104 / hshskang@hs.ac.kr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은 사교육 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답변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 관련 문의사항은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031-379-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기본정보]

1. 자신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남자 ☐여자

2. 지원한 전형을 선택해주세요.

☐참인재전형 [면접고사일: 10/11(토)] ☐논술전형 [논술고사일: 11/30(일)]

중복제출 확인을 위해 이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text 입력]

- 이름은 유효 응답(중복 확인) 체크 후 바로 파기됩니다.

- 2번 설문종료 후, 각 페이지(면접, 논술)로 이동

3. 지원한 모집단위(전공)를 선택해주세요.

참인재	논술
☐ 자유전공학부	☐ 자유전공학부
☐ 신학	☐ 한국어문학
☐ 미디어융합기독교교육	☐ 철학
☐ 한국어문학	☐ 한국사학
☐ 철학	☐ 문예창작학
☐ 한국사학	☐ 독일어문화학
☐ 문예창작학	☐ 영미문화학
☐ 독일어문화학	☐ 중국어문화콘텐츠학
☐ 영미문화학	☐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 중국어문화콘텐츠학	☐ 일본학
☐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 동아시아통상학
☐ 일본학	☐ 경제금융학
☐ 동아시아통상학	☐ 국제관계학
☐ 경제금융학	☐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 국제관계학	☐ 경영학
☐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 경영학	☐ 사회학
☐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 사회복지학
☐ 사회학	☐ 재활상담학
☐ 사회복지학	☐ 심리·아동학
☐ 재활상담학	☐ 금융공학
☐ 심리·아동학	☐ 빅데이터융합학
☐ 금융공학	☐ AI·SW학
☐ 빅데이터융합학	☐ AI시스템반도체학
☐ AI·SW학	
☐ AI시스템반도체학	

[면접고사에 관한 질문]	[논술고사에 관한 질문]
4. 한신대학교는 면접일 이전에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면접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면접고사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6. 면접의 질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7. 면접의 질문 문항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8. 우리대학 면접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또는 도서 활용 ☐스스로 준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준비 ☐학원·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음 ☐기타 () 9. 우리대학 면접전형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교과성적)와 적절해서 ☐면접 일정(10월 11일)이 적절해서 ☐전형방법이 변경되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 ☐면접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 (면접문제 사전공개로 준비기간 확보) ☐학생부 부담이 없어서(생기부 질문 없음) ☐기타 ()	4. 한신대학교는 논술고사 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술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5-1. 논술고사 중 ‘국어’ 과목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논술고사 중 ‘수학’ 과목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6-1. 논술고사 중 ‘국어’ 과목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6-2. 논술고사 중 ‘수학’ 과목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7-1. 논술고사 중 ‘국어’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2. 논술고사 중 ‘수학’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8.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또는 도서 활용 ☐스스로 준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준비 ☐학원·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음 ☐기타 () 9. 우리대학 논술전형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교과성적)와 적절해서 ☐논술 일정(11월 30일)이 적절해서 ☐전형 방법이 변경되어서 (논술비중 확대(80%), 반영과목수 변경 등) ☐논술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 (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 ☐학생부 부담이 없어서 ☐기타 ()

[공통질문 - 사교육 경험]

10.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을 받은 주된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 ☐ 사교육 경험 없음
- ☐ 수능대비
- ☐ 교과성적(내신관리)
- ☐ 비교과관리(학생부종합전형 대비)
- ☐ 면접 및 구술고사
- ☐ 실기
- ☐ 어학
- ☐ 논술
- ☐ 기타()

11.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실시하였습니까?

- ☐ 사교육 경험 없음
- ☐ 1개월 미만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1년 이상

[추가질문 - 의견 수렴]

12. 면접/논술고사를 통해 느낀 점 또는 향후 우리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한신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 후 입학인재발굴팀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내부위원 - ①

2026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 면접문항 사전공개가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100%('매우 그렇다' 84.1%, '그렇다' 15.9%)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사교육의 영향이 매우 낮은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음이 밝혀짐(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3.4%). ● 공개문항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인해, 실제 면접은 암기 능력을 확인하는 것에 수렴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이것이 변별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므로 공개문항에 더해 비공개 질문 1문항을 더하는 구조로 변별력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금 늘리 것을 제안할 수 있음.
	논술전형(논술)	● 모의고사/답안/기출 공개가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이 78.0%를 차지함. 이는 공개자료로 인한 효과라고 여겨짐. ● 국어 논술의 경우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89.0%('매우 충분' 51.5%, '충분' 37.5%), 교육과정 적절성에 대한 응답이 긍정 84.0%로 확인됨. 이로써 시험 시간과 교육과정 적절성을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핵심 이슈는 문항이 쉽다는 것인데, 이는 변별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변별력을 위해서는 기본 요약/구조화(기본점), 비교·평가(중간 변별), 적용·비판(상위 변별) 등으로 고도화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	유OO	

2) 내부위원 - ②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문항이 적절하여, 고등학생이 공개된 문항을 조사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논술전형(논술)	문항이 적절하여, 고등학생이 평소에 공부하고 수능에 대비하였다면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한신대학교 금융공학	윤00	

3) 외부위원 - ① [외부입시전문가]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 한신대학교는 면접을 공통 문항인 기초소양분야와 모집단위별 문항인 전공적성분야를 각각 1문항씩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진로와 관심 분야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 예컨대 기초소양분야는 진로와 관련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였다. 전공적성분야는 대학에서의 학습 계획과 지원 동기를 비롯해, 꿈과 비전,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 사회 기여, 감명 깊게 있는 책, 최근 쟁점 및 이슈, 중요한 역량, 해결 방안과 의견 제시 등으로 지원자의 경험과 견해를 밝히는 문항들이었다. ● 이에 한신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고사 문항은 매우 적절한 출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출제였다고 본다.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참인재 전형의 면접 문항은 이와 같은 경향으로 출제하면 좋을 것 같다.
	논술전형(논술)	● 한신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고사는 약식 논술로 출제 범위가 국어 영역은 '문학과 독서', 수학 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로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과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여 지원자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본다. ● 즉, 국어 영역은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과 용어 추론 능력, 단어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고, 수학 영역은 로그함수, 등차수열, 극대/극소, 함수의 연속, 삼각함수, 지수법칙, 부정적분과 정적분, 미분가능과 연속,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등에서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수능시험을 대비한 지원자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 난이도는 설문조사에서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국어 영역은 28.0%로 2025학년도에 47.2%이었던 것보다 19.2%p 낮아졌고, 수학 영역은 38.0%로 2025학년도에 41.5%이었던 것보다 3.5%p 낮아졌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신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적절하게 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시킬 요인도 거의 없었던 출제였다고 본다.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1318대학진학연구소	유OO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4) 외부위원 - ② [현직 고교 교사]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 참인재전형의 면접 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준비 및 한신대 홈페이지 자료 참고 비율이 68.7%이고 사교육 도움은 3.4%에 불과했다. ● 또한 면접 문항의 공통 문제 및 전공적성분야 문제가 몇 년간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었고, 질문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이라면 큰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결론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와 공교육 내에서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면접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교육 유발요인은 없다고 생각됨.
	논술전형(논술)	● 논술전형의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를 사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논술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국어 84.0%, 수학 84.5%였다. ● 또한 전반적으로 논술 문항들이 단위 고등학교에서 누구나 배우는 과목의 교과서 및 교육방송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국어 문제의 경우 그 지문의 길이가 충분히 시간내에 이해 가능한 난이도 수준으로 판단되며, 발문 역시 명확하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았다. ● 수학의 경우 수학1, 수학2 등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중하 수준의 문제로 출제 되었으므로 고등학교의 국어와 수학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들이라면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경기)오산고등학교	한OO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5) 외부위원 - ③ [현직 고교 교사]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 면접 문항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수업과 독서 활동,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함. ● 철학 전공의 AI 발전의 영향,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의 AI 행정 사례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와 전공을 결합한 문항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도 판단됨. 이러한 사회 이슈-교과 연계형문항을 타 전공으로도 확대하여,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고교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정착시키면 좋을 것 같음. ● AI시스템 반도체학과와 AI·SW학과수준의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와 정보, 정보 윤리 단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특히 AI·SW학부의 윤리 문제는 정보 윤리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없이 교과 과정 내의 활동으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됨.
	논술전형(논술)	● 국어와 수학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의 생소한 개념이나 대학 수준의 선행 학습을 요구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학교 수업과 EBS 연계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전형으로 판단 됨. ●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이 명확하며 예상 소요 시간 또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 논술고사로서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됨. ● 국어의 경우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학습을 유도하였고 채점 기준 또한 어절 제한이나 문맥 호응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 됨. ● 수학의 경우 단순 결과 도출보다는 진수 조건 확인, 일반항 도출, 미분 계수 계산 등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어, 고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사고력' 측정에 부합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장안고등학교	최OO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 전 화 : 031-379-0104
 팩 스 : 031-372-6101
홈페이지 : <http://ent.hs.ac.kr>